

2주차

3·1운동과 저항시

주차별 차시

| | 차시명 |
|-----|------------------|
| 1차시 | 국권 상실과 한국인의 저항 |
| 2차시 | 3·1운동의 전개와 의미 |
| 3차시 | 상처 입은 개인을 위한 문학 |
| 4차시 | 궁핍한 시대의 시인 되기 |
| 5차시 |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민족 문학 |

1차시 국권 상실과 한국인의 저항

학습 목표

-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1910년 이전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되는 과정과 국제 정세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권 상실과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은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에 대응하던 시기였습니다. 동학은 서양의 문물과 체제의 침범 역할을 하던 서학, 즉 천주교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이들은 만민평등을 꿈꾸었습니다. 1894년 전라도에서 포악한 관리와 외세의 수탈에 대한 반발로 동학농민군이 봉기합니다. 정부에 저항하며 사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다급해진 조정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도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키게 됩니다. 외세의 간섭을 우려한 농민군은 정부와 협상안에 동의하며 자진 해산했습니다. 청일전쟁으로 국토가 전쟁터로 변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9월 하순에 농민군이 외세에 저항하고자 다시 봉기합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며 2차 봉기는 실패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녹두장군 전봉준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인사였던 그의 체포 소식을 들은 일본인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봉준은 체포 이후에도 자신을 장군이라 칭하며 동학 지도자로서의 근엄함을 잃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다른 열강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한제국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원래 대한제국은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했으나 군사적 압박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의 정부를 위협해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한 군사기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효화하고 나중에 한국을 침략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본은 곧이어 한국의 재정 외교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04년 8월에 이에 관한 협정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이로써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 외교, 군사, 경찰 등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본은 대한제

국 식민화를 위해서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을 차례차례 진행합니다. 미국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같은 해 8월에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미국과 영국이 외교적으로 묵인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1905년 9월에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맺어서 러시아마저 대한제국 안에서 배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 식민화를 위한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1905년 11월 일본은 고종을 협박하고 대한제국의 친일적 관료들을 매수하여 을사조약, 즉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의미에서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속된 조약, 이런 뜻입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 고종을 협박하고 대한제국의 친일적 관료들을 매수해서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늑약으로 대한제국은 국가 주권의 핵심인 외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의 보호국, 즉 사실상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국권을 강탈당한 나라의 이름만 남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해서 대한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언론인 장지연은 ‘오늘은 목 놓아 크게 울어야 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 발표합니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다양한 저항 및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죽음으로 을사늑약에 저항한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한응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 강대국들이 일제의 이익을 대변하며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항의하다가 자결해서 이후에 을사조약 반대 운동 등 애국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등이 조약 체결에 죽음으로 항거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국민적 저항의 불씨 역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국권회복운동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두 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개항 후 한국 민족이 상당 기간 열강의 침입에 대해 완강한 항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박탈당한 것은 힘과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국내에서는 민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에서 든 사업들을 수행함과 동시에 특히 청소년들을 국권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민족의 간부로 양성해서 실력을 준비하는 한편 둘째, 국외에는 무관학교를 중심으로 독립군 기지를 설치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실력을 준비해 두었다가 세 번째, 일본이 전쟁에 휩싸여 감당하기 힘겨운 절호의 기회가 오거나 한국 민족의 실력이 대폭 증강되면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해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준비한 민중의 실력을 총단결하여 내외가 호응해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약의 파기를 주장한 의병 활동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중식은 관직을 버리고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은 의병을 모아 평해, 울진 등지에서 활약했습니다. 최익현은 74세의 고령으로 순창에서 관군과 대치하다가 동족끼리 죽이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포로가 되었고 대마도로 끌려가 순절하였습니다. 고종은늑약 체결 이후에도 그것을 인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07년 6월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수호를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 평화회의에 비밀 특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 사건이 나중에 발각된 후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헤이그로 파견된 이상설, 이준, 이위중은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 호소하는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열강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나라들이 이미 비밀리에 일본과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일본은 1910년 7월에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내정 통치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대한제국 군대를 한 달에 걸쳐서 강제로 해산시킨 뒤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테라우치 통감이 비밀리에 합병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통감부는 총독부로 개편하고 식민지 통치의 총본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초대 총독은 통감이었던 테라우치가 맡게 됩니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의 보호와 원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해 온 일본인 자본가들은

1910년 합병 이후 금융, 광업, 임업, 어업, 운수, 통신 등 산업 전 분야를 장악하게 됩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농업의 지배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많은 토지를 탈취하여 대다수의 한국 농민이 일제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1910년 12월에 내려진 회사령은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총독부는 문화, 교육 면에 있어서도 한국 고유의 역량을 억제하고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립학교령으로 인해 한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기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언론, 출판 역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었고 일체 집회가 금지되어 한국의 민족 문화 및 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97.

2차시 3·1운동의 전개와 의미

학습 목표

- 3·1운동의 배경과 준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3·1운동이 향후 여러 방면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3·1운동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식민지 조선에서 전국적 규모의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1919년에 파리평화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도했는데 식민지의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 원칙에 따라 여러 신생 독립국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912년에는 유럽과 의병 중심의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고 1915년에 설립된 광복회는 만주에 군관학교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 조선 국권 회복단, 국민회, 자립단 등 다양한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상해, 미국, 만주, 연해주 등 해외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일제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저항 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벌어진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선언문인 기미독립선언서의 모태가 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에 동경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 600여 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이 선언서의 작성과 번역을 주도했던 것은 당시 이미 소설 등으로 유명했던 이광수였습니다. 선언 직후 일본 경찰은 이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했던 사람들을 검거했습니다.

2·8독립선언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한 합병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민족의 생존과 동양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조선 민족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소집하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요구한다.

셋째, 파리평화회의 민족자결주의를 조선 민족에게 적용한다.

넷째, 앞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본과의 혈전을 불사하겠다.

젊은 유학생이 주도한 이 2·8독립선언은 상당히 분명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조선의 독립을 용감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유학생을 조직하여 동맹 휴학 운동을 일본에서 전개하고 그리고 일부는 귀국해서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3·1운동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18년 6월 상해에서 여운형, 김규식 등의 신한청년당이 결성되었고 월슨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18년 12월에 안창호 중심의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승만을 파리에 파견할 것을 결의하였고 월슨 대통령에게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1918년 12월에 최초로 대한독립선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8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보다 앞선 무오년에 작성된 무오독립선언서는 강력한 무장 투쟁의 의지를 표명하고 독립군의 쫓겨난 공격적인 내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직전의 국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918년 말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계 그리고 청년 학생 그룹 등을 중심으로 각각 독립 선언 운동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퍼지고 일본에 의한 독살설이 또 퍼지면서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천도교, 기독교, 학생 대표들은 1919년 2월부터 통합적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은 2월 중에 독립 통고서와 독립선언서를 완성하고 종교계 조직을 활용하여 사전에 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독립만세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장 투쟁을 명시했던 1918년의 무오독립선언서나 1919년 2월의 2·8독립선언서에 비해서 최남선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족 자결과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그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3·1운동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서울,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등 6개 도시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었고 비폭력 투쟁의 형식을 지향했습니다. 3월 3일에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고 여기에 상경한 사람들이 서울의 시위에 참여한 이후에 각각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독립선언서와 만세 운동을 전파하게 됩니다.

3·1운동 전개의 두 번째 단계는 3월 10일을 전후로 전국의 주요 도시로 만세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학생 중심에서 확대되어 상인과 노동자 등이 파업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월 중순 이후로 농촌 지역으로 만세 시위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농민들의 참여 이후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몽둥이, 죽창 등으로 무장하여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폭력 투쟁의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평화적인 방식으로 만세 시위운동이 진행되었지만 3·1운동에 대하여 일본 총독부는 무자비한 무력 진압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화성의 제암리, 천안의 아우내, 정주의 곡산 등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가혹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15,000여 명이 다치고 7,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40,000여 명이 감옥에 구금되었고 교회와 학교, 민가가 불태워졌습니다. 천안의 아우내에서 만세 운동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된 유관순은 3·1운동 당시에 17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 운동을 위해서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의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일본 경찰에 의해서 19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920년 3월 1일 옥중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고문과 영양실조로 18살에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3·1운동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3·1운동은 첫째, 지식인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독립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체계적, 조직적 독립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향후 1920년대의 다양한 사회 운동과 조직 활동을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3·1운동에도 한계는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체계적 지도 조직이 없었습니다. 지도 조직의 부재로 투쟁의 형식과 방법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종교계 중심의 민족 대표들이 평화적 독립 청원의 방식을 고집하였고 이로 인해서 민중의 항일 투쟁 의지를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한 것이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를 통해서 독립운

동을 통일적으로 이끌 수 있었으며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이라는 독립운동의 체계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97.

3차시 상처입은 개인을 위한 문학

학습 목표

- 1910년대 중반 이후 개인을 위한 문학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1920년대 낭만주의 문학이 보여준 미학적 지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낭만적 민요시인 김소월의 주요 작품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처 입은 개인을 위한 문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대의 근대 문학은 예술가가 아니라 애국 계몽의 책임을 진 지식인의 입장에서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애국 계몽기, 즉 1900년대의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임무는 문명개화와 애국이었습니다. 유학생 그룹을 포함한 청년 지식인들은 스스로 문명과 애국을 말하는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나 순수한 예술은 관심을 두기 어려웠습니다.

1900년대의 두 작품을 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1908년 『태극학보』라는 잡지에 수록된 「애국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애국가」라는 제목의 창가 가사가 발표됐습니다. 그중의 한 편이죠. 굉장히 긴 작품이지만 그중에서 일부인 5절과 6절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하지 누가 내 나라를 사랑할고/내 몸이 죽어도 내나라
보전해 길이 보전하세 길이 보전/우리나라 문명 발달되고 우리나라 독립 공고
하면/빛난 영화로다 항상 즐겁겠네 나라 영광일세 나라 영광."

이런 작품입니다. 같이 살펴본 이 작품이 말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국심,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구성도 단순하고 내용의 표현이나 문장의 형식도 굉장히 반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식인을 독자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 자기 입장에서 훨씬 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을 독자, 청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쉬운 언어와 표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 작품으로서 언어의 함축성, 긴장감, 이런 개성과 매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듣자마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깐요. 매우 선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비슷한 시기 최남선이 지은 창가 가사 작품입니다. 7글자, 5글자로 이어지는 7·5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긴 작품인데 그중의 일부만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경부철도가」

우리들도 어느때 새기운나서/곳곳마다 잃은것 찾아드리여/우리장사 우리가
주장해보고/내나라땅 내것과 같이보일까

최남선의 「경부철도가」는 전체 총 268행에 이르는 아주 긴 분량의 작품입니다. 작품 한편으로 책 한 권 단행본으로 출간할 정도의 분량입니다. 경부철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찬양하면서 문명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7·5조의 형식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경부선 철도는 일본인들이 만든 것이죠. 이 작품 내용에 있어서 외세의 힘을 빌린 경부철도를 조선인이 스스로 예찬하는 등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문명에 대해서 계몽하고 교육하는 외적인 목표에 몰두하느라 이 작품에서 시적인 인식, 발견 등의 미학, 개성적인 감정 표현 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1910년에 일한 합병, 한일 합병 이후 완전히 국권이 상실됩니다. 그러자 애국 계몽의 구심점이었던 국가, 즉 대한제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 시기에, 즉 1910년 이후에 국가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근대적 개인의 자유로운 내면의 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내면의 안쪽을 살펴보면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혼돈과 폐허 속에서 국가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개인의 주체적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시 작품, 즉 자유시가 출현하는 것은 1914년 4월에 창간된 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 『학지광』에서부터였습니다. 자유시는 말 그대로 율격적 형식이 정형시에 비해서 자유롭다는 뜻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 표현의 자유 또한 핵심적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대 중반 이후 『학지광』, 『태서문예신보』 등의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인들이 등

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최남선, 이광수 등 선배들의 계몽적 문체를 거부하고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언어와는 좀 다른 새로운 시적 언어를 추가합니다. 아직은 현대시의 장르적 특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당대 분위기는 계몽적 언설, 계몽적 주장이 주류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인들은 당대의 계몽적 시각, 계몽적 논설들과 대결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미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작품은 시인 김억이 1915년 5월에 발표한 자유시 작품입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작품이 자유시의 효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의 부분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밤과 나」

밤이 왔다, 언제든지 같은 어두운 밤이, 遠方(원방)으로 왔다./멀리 끝없는 은가루인 듯 흰 눈은 넓은 빈 들에 널리었다./아침 별의 밝은 빛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듯한 나무며, 수풀은 공포와 암흑에 싸였다./사람들은 희미하고 약한 불과 함께, 밤의 적막과 싸움을 마지아니한다./그러나 차차, 오는 애수, 고독은 가까워 온다./죽은 듯한 몽롱한 달은/薄暗(박암)의 빛을 희미하게도 남기었으며/무겁고도 가뻐얍은 바람은 한없는 키스를 띄우며 모든 것에게, (라고)한다./공중으로 나아가는 낡은 오랜 너의 소리/현실이나? 現夢(현몽)이나? 의미 있는 생이나? 없는 생이나?

작품이 앞에 읽었던 계몽적 작품에 비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애국가」나 「경부철도가」와 시적인 언어 자체가 무척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김억은 감정을 직접 진술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인 밤과 어둠 그리고 어둠과 공포의 공간은 화자의 심리적 고민과 갈등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설정된 상징적 공간입니다. 화자의 마음속 고민과 갈등의 그 내용은 미몽에서 깨어나, 꿈에서 깨어나 의미 있는 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19년 2월에 창간된 『창조』를 시작으로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발행되게 됩니다. 이 동인지들은 새로운 근대적 문학의 주춧돌이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에서는 주요한의 「불놀이」, 소설에서는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과 같은 작품을 통

해서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완성된 작품을 신문학, 즉 근대문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수나 최남선의 계몽적 문학이 도학선생의 대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할 일 없는 사람의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김동인과 주요한에 의해서 근대적 소설과 근대적인 자유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 초반 동인지 문학의 대표적 사례인 『창조』와 『폐허』, 『백조』 동인들은 일정한 지향을 지닌 문학인 집단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근대 문학 작품이 전혀 없던 시절에 이 동인지들은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동인지 문단 대표적 시인 중에서 박종화와 이상화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조』 창간호에 실린 박종화 시인의 「밀실로 돌아가다」입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밀실로 돌아가다」

혼의 울음은 거침없이 끝벌의 꿈 꾸는 방을 싸돌아/요란하게도 음행(淫行)의 집을 흔들어오는데/고혹의 배반(杯盤)에 둘러앉아 사람 사람은 우스며 들네이다./아— 나는 가다 캄캄한 내 밀실로, 나뒀한 만수향 냄새 떠도는 내 밀실로 돌아가다./오— 거미여 참삶을 주소서,/그것이 만일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다 하거든/열쇠를 주소서 죽음 나라의 열쇠를 주소서/참삶의 있는 곳을 찾으려 하여/명부(冥府)의 순례자 되겠나이다.

같이 읽은 박종화의 시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설정한 "밀실"이라는 공간은 참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참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참소리, 즉 솔직한 자기표현과 참 울음, 즉 진정한 자기감정이 있는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박종화 시인에게 밀실은 꿈꾸는 방입니다. 자신의 이상향이면서 내면적 안식처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요란한 음행", "고혹의 배반"이라고 하는, 즉 퇴폐적인 현실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차라리 그 퇴폐적 현실보다는 새로운 자기만의 밀실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만수향 냄새에 떠도는 밀실", 즉 죽음이죠. 이 죽음이 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상상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곧 밀실 밖의 세계, 즉 현실 세계가, 오히려 참삶, 진정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종화 시인에게 밀실이라는 공간은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난 영원의 나라, 이것은 죽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조』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에서는 동굴 혹은 꿈 등의 이미지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박종화 시인의 ‘밀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상화 시인의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작품은 1923년에 발표된 「나의 침실로」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침실로」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느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없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으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야 알련만
.....

결국 이상화가 부활의 동굴로 설정한 침실이라는 공간은 쾌락과 퇴폐의 공간이 아니라 화자 자신 또한 도달하지 못한,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격정적인 표현과 진술들은 초현실적 공간을 향한 미실현된 쾌락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준오, 『시론』, 삼지사, 2010.
- 노춘기, 『자유시의 이념과 근대적 서정의 형식』, 서정시학, 2015.
- 노춘기, 「백조의 시인들」, 『서정시학』 겨울호, 2021.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97.

4차시 궁핍한 시대의 시인 되기

학습 목표

- 1920년대 시단의 대표 시인인 김소월과 한용운의 문학사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 김소월의 민요적 서정시에 드러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한용운의 불교적 서정시에서 시적인 상상력과 비유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김억은 『태서문예신보』라는 잡지를 통해서 유럽의 상징주의 시를 소개하고 최초의 번역 시집인 『오뇌의 무도』라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근대시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안북도 정주군의 오산학교에서 김소월 시인의 선생님이었는데 김소월의 문학적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김소월 시인이 요절한 후의 시선집이죠 『소월시초』라고 하는 유고시선집을 발행해내서 김소월 시인을 잊히지 않게 다시 대중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자신의 스승인 김억 시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억 시인이 많이 했던 7·5조 형식의 민요적인 운율 기반의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은 이별과 슬픔, 한의 정조 등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김소월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 세계는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전원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좌절과 미련, 원망과 자책 등 갈등의 근원이 되는 상실감 또한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근대적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이 상실된 현실을 함께 경험하는 근대적 개인의 고뇌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전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은 이별을 앞둔 화자의 좌절감에 더해서 님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복종이나 순종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련, 원망 그리고 자책, 갈등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님은 나를 떠나겠지만 나는 님을 끝내 체념할 수 없다는 반어적 표현 방식이 매우 개성적으로 나타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시인은 매우 평이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의 자연스러움이 김소월 시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유화」는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연 바깥에 있는 주체의 내면이 함께 암시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품 2연에 나타난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구절은 화자와 꽃의 거리, 화자 입장에서 저만치 있는 꽃, 그것을 보는 거리, 그다음에 꽃이 다른 꽃들과 떨어져서 홀로 피어 있는 꽃, 다른 꽃과 홀로 있는 꽃의 거리 등을 나타내는 중층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고독감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근대적 개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고독감이 드러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근대적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꽃이 예쁘다, 자연은 아름답다에서 끝나겠죠. 하지만 그것을 쓸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김소월의 이 작품이 근대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월의 「산유화」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그러므로 단순히 순환하는 이상적인 완벽한 자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로운 질서의 고리, 그것이 이미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식민지화의 과정을 통해서 파괴되어 버린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그대로 내가 즐길 수 없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근원적인 고독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저만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거리감, 고독감이 표현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세계에 던져졌다고 하는 의미의 "피투성"이라고 하

는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피투성, 나는 이 거친 세계에 던져진 저 외로운 꽃과 같구나라고 하는 시인의 자각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을 낭독해보겠습니다.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 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례 절차에서 초혼은 죽은 이의 옷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소월은 이것을 좌절된 사랑의 처절한 슬픔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현실과 그것을 부정하면서 죽은 자를 내가 부르는 소환하는 행위는 서로 충돌하면서 그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모순된 감정의 혼돈을 격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초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시인은 한용운입니다. 한용운은 승려이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문단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1920년대 가장 뛰어난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낸 중요한 시인입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시집을 두 권 꼽으라면 한 권이 『진달래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소월에게 스승인 김억의 가르침과 지원이 있었다면 한용운에게는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받았던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타고르는 인도 출신 시인입니다. 이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을 동양인 최초로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는 등 그래서 일본의 신문과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신문에도 굉장히 대서특필되면서 서양인을 누르고 동양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굉장히 각광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 타고르의 작품을 한용운이 보고 나도 이런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인 타고르는 신에 대한 예찬, 즉 사회와 역사를 초월한 신성한 세계를 그리고 있었다면 한용운은 타고르의 어법과 시의 신성한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연애시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용하지만 타고르보다 훨씬 더 민족적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밀착된 그런 작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용운 시인은 자신의 작품에서 불교적 사상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결합하고자 했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자유와 평등, 민중 지향성, 이런 특징은 불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족주의와 역사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독립정신이 함께 결합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용운의 시는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

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적 어조가 드러났고 이것은 타고르의 영향이면서 동시에 관음보살로 대표되는 불교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대표작이죠, 「님의 침묵」, 전체 작품을 좀 긴 편이지만 천천히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의 상실, 님이 사라졌죠. 그 님의 상실, 즉 이별에 저항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심적인 모티프가 된다, 반복적인 모티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님은 갔죠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믿는 역설적 신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별과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재회, 다시 만나는 재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역동적 언어, 역동적 상상력은 불교 특유의 유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선(禪)적인 특징을 통해서 반어적 어법,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굉장히 초월적인 상상을 하는 데 익숙한 편입니다. 그 특징이 한용운 시인의 상상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돌이킨다는 표현이 그런 불교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은 있음과 없음, 존재와 상실, 가능과 불가능, 만남과 이별의 경계를 초월하는 불교적 초월의식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색즉시공, 물질과 물질이 없는 허공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초월의식이 이 시의 기법에 들어간 것이죠. 극단으로 치우치려는 마음을 끈질기게 견인하려는, 이끌어내려는 불교적 수행자의 정신을 통해서 독특한 시적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용운 시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용운의 시 세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알 수 없어요」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연뜻연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
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자연과 일상을 소재로 해서 비교적 잘 읽히는 작품입니다. 만
해 한용운 시인에게 자아, 즉 나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로의 자기 초월, 즉 자아의 희생이 가능하기 때
문입니다. 불교적으로 자이는 희생이라는 초월을 통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끊임없는 자
아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작품에서 여러 가지 자연물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와 내가 연결될 수도 있고 초월적 존재가 시냇물에, 나뭇잎에, 바람 소리에 스며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작품의 상상력이죠. 그 궁극적 지점에서 도달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넘입니다. 결국 나와 이 초월적 존재인 넘어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내가 지금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적 상상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준오, 『시론』, 삼지사, 2010.
- 노춘기, 『자유시의 이념과 근대적 서정의 형식』, 서정시학, 2015.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5차시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민족 문학

학습 목표

- 계급 운동이 민족 운동의 한 형식이 되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 임화의 단편 서사시에서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시조부흥론이 출현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920년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주로 무력 투쟁을 중심으로 독립군들의 저항 운동이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는 계급 투쟁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미래의 독립을 위해서 현재는 저항, 투쟁보다는 자신의 내재적 역량을 배양해야 된다는 온건주의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힘을 기르자. 그래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계급 운동은 현재의 조선 민중, 즉 조선인 노동자와 조선인 농민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즉시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계급 운동, 즉 사회주의적 독립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지주와 자본가가 이미 일본인으로 대체되어 버린 식민지 상황을 고려하면 자본가에 대항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계급 운동은 곧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 됩니다. 자본가가 다 일본인이니까요. 멀리서 신문의 소식으로만 간간히 접하는 독립군의 무장 독립 투쟁보다는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의 생계와 실존을 위해서 내 옆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싸워주는 사회주의 운동이 식민지 시대 민중들에게 훨씬 더 체감되는 독립운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가 대유행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 지식인이 대중적 지지를 크게 얻게 됩니다.

1925년 결성된 KAPF, 즉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원래 박영희, 김기진 등 문학가 중심이었던 파스쿨라와 사회주의 운동가 중심이었던 염군사, 이 두 조직이 통합해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초기에는 박영희, 김기진의 평론, 최서해의 소설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시는 미약했습니다. 이들은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자 하는 단체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설의 경우에는 문학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들을 산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KAPF 계열의 소설가들에 의해서 많이 발표가 됐어요. 우리 문학사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시 작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미학적 성취를 보여주지 못했고 대중적 큰 공감을 얻는 시인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류완희라는 시인의 「가두의 선언」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가두의 선언」

민중 - 민중 - 민중
 곧세게 나가라! 앞으로 - 앞으로
 도시의 민중 - 향촌의 민중
 모터의 음향을 좀 더 광대하게 하라!
 대지의 호흡을 좀 더 깊게 하라!
 민중 - 민중의 전진 - 전진의 굳세임
 우리는 이것을 찬미한다! 그것을 축복한다.

KAPF의 시인들은 대체로 문학을 정치의 수단,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의 예술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시가, 선언을 담은 전단지, 홍보물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1900년대 최남선, 이광수의 계몽적 시가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KAPF 계열의 작품에는 심지어 운율, 율격도 없고 비유도, 이미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증오와 적대감의 표출 일색이어서 폭넓은 공감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임화의 단편 서사시 작품들입니다. 임화가 1920년대 후반에 발표한 몇 편의 작품이 KAPF 계열 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 것입니다. 공감하기 쉬운 실제적 스토리를 시 작품에 다루되, 즉 이야기적인 요소, 서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흥미롭게 하되 여기에 계급적인 비전, 혁명에 대한 낭만적인 인식을 함께 표현하고자 한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1920년대 동인지 시단의 정서적 과잉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서사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대중적 공감을 얻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임화의 단편 서사시 여러 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오빠와 화로」의 일부를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빠와 화로」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永男)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 무늬 화로를 사 온 오빠
 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 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火)젓같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永男)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니다.

이 작품은 화자인 누이가 감옥에 가 있는 오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스토리가 중심으로 담긴 작품입니다. 담배 공장 직공이었던 오빠가 노동 투쟁, 즉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자본가와 싸운 거죠. 이 노동 투쟁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남은 누이가 남동생과 함께 어려운 생계를 감당하면서도 오빠에 대한 애정, 오빠의 투쟁에 대한 믿음, 나는 잃지 않았다,

앞으로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공감이 되면서도 강한 계급의식과 투쟁의 의지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임화의 또 다른 단편 서사시로 「네 거리의 순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리의 순이」

순이야, 누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연인아!
 생각해보아라, 오늘은 네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한 일에 보내던 그 여윈 손가락으로
 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
 또 이거 봐라, 어서. 이 사내도 네 커다란 오빠를.....
 남은 것이라고는 때 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
 오오, 눈보라는 '튜럭'처럼 길거리를 휘몰아간다.
 자 좋다, 바로 종로 네거리가 예 아니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
 자.
 네 사내를 위하여, 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을 위하여.....
 이것이 너와 나의 행복된 청춘이 아니냐?

이 작품은 연인을 감옥에 보내 슬픔에 잠긴 누이동생을 오빠가 달래는 위로의 형식으로 된 작품입니다. 앞서 살펴본 작품처럼 편지의 느낌이 나죠.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보편적이고도 전형적인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시인이 직접 목격한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일본인이 사장인 공장에서 착취당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 모델을 뽑아서 전형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상황과 인물 유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식민지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고 조선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계급적인 심리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화 이전에 다른 KAPF 계열의 시인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고, 센세이션이었고,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임화의 시를 극찬을 했어요.

하지만 이 임화의 시가 공감을 얻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현장이나 실천적인 운동의 모습,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저항적 문학의 좌파에서 KAPF 계열의 문학이 있었다면 우파에서는 국민문학파로 불리는 인물들과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KAPF 결성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 즉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기존의 문학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학에 대항하고자 하면서 나타난 것이 국민문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중심이었던 인물은 최남선, 이광수를 필두로 한 기성의 문단이었습니다.

이 기성 문단의 이론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시조부흥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문학파는 시조가 1920년대 초에 개인주의, 낭만주의 시를 극복하면서도 KAPF 계열 문학의 경직된 언어, 투쟁적인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조가 조선의 국토 그리고 조선인의 삶, 조선의 마음 그리고 조선인의 언어가 담긴 조선의 운율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필연적인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문학파는 시조야말로 국민 문학의 정신을 표현하는 바람직한 형식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 시조의 새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시조 시인 이병기의 「새벽길」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새벽길」

밤에 못걸은 길을 새벽에나 걸으리라
 잘 잠을 다자고야 뱃븐일 어이하리
 남이야 가든 마든가 내 갈대로 가리라
 마을 닭이 운들 잠든 서울 깨우드냐
 담미데 실개천도 졸졸 잘잘 흐르건만
 뉘 그리 귀를 기울여 들어줄 이 잇느냐
 가개스문 열린 대로 저자 보러 가는 이도
 물지게 흔들흔들 비틀걸음 하는 이도
 새벽의 길동무되어 간데족족 따르노나

새벽의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현대시조 작품입니다. 시조부흥운동 초기에 최남선, 이광수 등이 주도할 때는 조선시대의 고시조, 평시조와 다를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병기는 과감하게 시조의 혁신을 부르짖으며 현대 시조의 새로운 모형, 새로운 주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보여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고시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 현대적 감수성이 잘 표현된 시조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시조부흥운동의 핵심적 시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준오, 『시론』, 삼지사, 2010.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Lecture

1차시 국권 상실과 한국인의 저항

Nice to meet you all. I am Professor No Chun-gi from Kangnam University. Today, I will delve into the subject of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Korea faced demands from Western powers to open its doors. In response, the ideology of "Tonghak (Eastern Learning)" emerged to counter Western Learning, which represented Western culture and systems. Eastern Learning envisioned universal equality. In 1894, the Tonghak Peasant Army rose up in Chōlla province to resist oppressive governance and foreign exploitation, and demanded social reforms. The government, under pressure, requested troops from China's Qing dynasty, resulting in Japan landing troops in Incheon. Fearing foreign intervention, the peasant army agreed to government negotiations and disbanded. The outbreak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turned the country into a war zone, intensifying Japan's interference. In September, the peasant army rose up once again in defiance of foreign powers, but suffered a significant defeat at the hands of the Japanese army, resulting in the failure of the second uprising.

This is a photograph showing the apprehension of General Chōn Pong-jun, also referred to as "General Mung Bean," who was the leader of the Tonghak Peasant Movement. This photograph was taken by a Japanese journalist, as the arrest of Chōn Pong-jun to Seoul was widely known in Japan. It serves as a significant historical record of the event. Chōn Pong-jun was recorded as continuing to refer to himself as a general and maintaining his dignity as a leader of the Eastern Learning after his arrest.

Japan emerged victorious in the 1894 Sino-Japanese War, allowing them to

secure a superior position in Korea compared to other powers. In February 1904, Japan instigated a war with Russia and dispatched a massive military force to the Great Han Empire. Japan defeated Russia too. Originally, the Great Han Empire declared neutra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Japan threatened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Empire with military pressure,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Protocol.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were Japan securing the right to use military bases for the Russo–Japanese War and invalidating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neutrality, creating a foundation for later invading Korea. Japan then demanded that foreign advisors be invited to reform Korea's financial and foreign policies, and in August 1904, they imposed a treaty on the matter, which was the First Japan–Korea Agreement.

As a result, Japan gained control of the Great Han Empire's finance, diplomacy, military, and police. Japan proceeded with making various treaties to obtain diplomatic recognition from major powers for the coloniz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In July of 1905, Japan made the Taft–Katsura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y made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with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cognized Japan's domination over the Great Han Empire through diplomatic means. Also, in September of 1905, Japan successfully excluded Russia from the Great Han Empire by making the Treaty of Portsmouth with Russia. This led to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Japan's coloniz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In November of 1905, Japan threatened the Great Han Emperor, Kojong and bought out pro–Japanese figures in the Great Han Empire, leading to the signing of the Protectorate Treaty (Ŭlsa Choyak), or the Second Korea–Japan Treaty. This treaty was illegally and forcibly signed, hence the term "Ŭlsa Nŭgyak" is also referred to as "Unwilling Treaty". It signifies that the treaty was impo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Great Han Empire. A photo taken in commemoration of the day shows Ito Hirobumi, who led the treaty negotiation, sitting in the middle. We can see why An Chung–gŭn assassinated Ito Hirobumi later. In November of 1905, Japan threatened the Great Han Emperor, Kojong and bought out pro–Japanese figures in the

Korean Empire, leading to the signing of the Protectorate Treaty (Ŭlsa Choyak), or the Second Korea–Japan Treaty. The Great Han Empire lost its diplomatic power, the core of its national sovereignty, as a result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which made it a de facto colony under Japanese protectorate. The country was left with only its name while its national sovereignty was taken away. Japan established "T'onggambu (Residency–General)" to govern the Great Han Empire.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journalist Chang Chi–yŏn published an article titled "Siirya pangsŏng taegok (Today We Cry Out in Lamentation)," which elicited a strong reaction. The treaty faced widespread resistance and various movements throughout the country, with some governors even sacrificing their lives in protest. Yi Han–ŭng, for instance, committed suicide in protest of Korea's loss of diplomatic rights, and his death influenced patriotic movements like the anti–Protectorate Treaty movement. Other resistance leaders like Min Yŏng–hwan, Cho Pyŏng–se, Hong Man–sik, Yi Sang–ch'ŏl, and Kim Pong–hak also lost their lives while resisting the treaty. These deaths were meant to ignite national resistance.

The national sovereignty restoration movement was then developed through the Patriotic Enlightenment and the Righteous Army movements.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started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reason the Japanese imperialists were able to eventually deprive the Korean people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despite their prolonged and strenuous efforts, was due to the lack of capability and power of the nation.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Korean people, the first emphasis was o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by implementing programs that would enhance their power and abilities. Secondly, a number of military schools were established abroad to offer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goal of growing the independence army and enhancing the nation's capabilities. Thirdl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was prepared in case Japan was embroiled in a difficult war situation or Korea had a rare opportunity to counter–attack. If the capabilities of the Korean people were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Independence Army would enter the country and initiate the War of Independence, uniting the efforts and skill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viduals to drive out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regain national sovereignty. The righteous army movement was an immediate effort to restore national sovereignty. It involved activities and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and the insistence on breaking the treaty, which took place in various regions. Min Chong-sik resigned from his official post and raised a righteous army to occupy Hongju Fortress and confronted the Japanese army. Sin Tol-sök, a commoner righteous army commander, gathered the righteous army and led efforts in P'yŏnghae and Uljin. Ch'oe Ik-hyŏn, who was 74 years old, confronted the government forces in Sunch'ang. He lamented that he couldn't bear to kill the same Korean people and was taken to Tsushima Island where he died. King Kojong did not approve the treaty even after it was signed. In June 1907, King Kojong sent a secret envoy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 in the Netherlands to nullify the Protectorate Treaty and to appeal for the protec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Great Han Empire. However, when this was later discovered, Japan claimed it as an excuse and forced King Kojong to abdicate, crowning King Sunjong instead. Yi Sang-ch'öl, Yi Chun, and Yi Wi-jong, who were sent to Hague, revealed the illegality of the Protectorate Treaty and engaged in diplomatic efforts to restore Korea's sovereignty. However, their appeals did not receive attention or produce results, as countries such as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d already reached a secret agreement with Japan.

Japan, after forcing King Kojong to abdicate and crowning King Sunjong, forced a new Korea-Japan agreement in July of 1910, giving them legitimate control over the country's internal affairs. In August of the same year, after forcibly disbanding the Korean Imperial Army for a month, Yi Wan-yong, the Prime Minister, and Terauchi, the Residency-General, secretly signed the annexation treaty, effectively making the Great Han Empire a complete colony of Japan. After the annexation, the Residency-General was reorganized into the Government-General and served as the headquarters for colonial rule, with Terrauch serving as the first Governor-General. Japanese capitalists, with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the Resident-General, established economic dominance in Korea after the signing of the Protectorate Treaty. Since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y took control of all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mining, forestry, fishing,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From 1910 to 1918, under the guise of a land survey projec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stablished dominance over Korean agriculture and seized a large amount of land, resulting in widespread exploitation of Korean farmers. The Company Law issued in December 1910 made it virtually impossible for Koreans to establish a company. The Governor-General also implemented policies to curb Korea's unique cultural and educational capabilities and to destroy their national identity. The Private School Ordinance made it impossible for Korean-l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xist, and restrictions were placed on press and publishing. The use of Japanese was forced and all gatherings were prohibited,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culture and art.

2차시 3·1운동의 전개와 의미

Let us examine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On March 1st, 1919, there was a major nationwide resistance movement in colonial Korea. Before this event, the Paris Peace Conference was held in 1919, which was led by President Wils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emphasized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claimed that the people of colonies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and led to the creation of several newly independent states.

Following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various organiza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arried out independence movements. In 1912, "Tongnip Ŭigunbu (Righteous Army for Independence)" was formed with Confucian scholars and righteous armies at its core. "Kwangbokhoe (Society for the Liberation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15 and aimed to establish a military academy in Manchuria. Other secret organizations, such as "Chosŏn Kukkwŏn Hoeboktan (Society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 National Sovereignty)," "Kungminho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Chariptan (Self-Reliance Society)" were also formed and were active in abroad regions such as Shanghai, the United States, Manchuria, and Primorsky.

In Korea, resistance to Japanese rule and landlords was growing. The March 1st Movement was preceded by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n February 8, 191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for the Declarat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the year of Kimi. On February 8, 1919, 600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gathered and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ing their sovereignty over Korea. The declaration was led by Yi Kwang-su, who was well-known for his novels at the time and was responsible for its writing and translation. However, shortly after the declaration, Japanese police disbanded the group and arrested its leaders.

The core contents of the February 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in points. First,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was not voluntary and was detrimental to the people and peace in the East. Second, the Korean people demand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fate through their own choices. Third, the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inciple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should be applied to the Korean people. Fourth, if their demand was not met, they were prepared to fight against Japan in a bloody battle. The February 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made by young international students, was unambiguous in its expression of determination. Thes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Tokyo bravely demanded Korea's independence despite the risk of arres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eir bravery in declaring independence in the heart of Japan. When the March 1st Movement erupted in Korea, some of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took a leave of absence from their studies in Japan and some returned to Korea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Let's examine the preparations for the March 1st Movement. First of all, in June 1918, "Sinhan Ch'ongnyŏndang (New Korea Youth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Shanghai by Yŏ Un-hyŏng and Kim Kyu-sik. They delivered a petition for independence to President Wilson's special envoy and sent Kim Kyu-sik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December 1918, "Taehanin Kungminho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as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around Ahn Chang-ho, which decided to send Syngman Rhee to Paris and to submit an independence petition to President Wilson. In Manchuria and Primorsky, the fir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written in December 1918, which is called "Muŏ Declaration", preced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February 8 and March 1. It contained the determination to engage in armed struggle for independence for the rise of the Independence Army.

Let's also look at the domestic situation just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Since the late 1920s, various groups, including the "Ch'ŏndogyo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Christianity, and youth student groups, were preparing for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The sudden

death of Emperor Gojong in January 1919 heightened anti-Japanese sentiment due to rumors that he had been poisoned by Japan. This led to the integrated movement of Ch'öndogyo, Christianity, and student representatives in February 1919. The group prepared for the independence notification an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istributed them in advance through religious organizations. The Kimi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written by Ch'oe Nam-sön. Compared to the Muo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February 8, which proclaimed the armed struggle, it called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in a nonviolent and peaceful way.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March 1st Movement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distributed in six cities, including Seoul, P'yongyang, Uiju, Sönc'h'ön, Anju, Wönsan, and Chinnamp'o, and the peaceful "Manse (long live independence)" Movement was launched. At that time, students played a leading role in nonviolent struggle. On March 3, King Gojong's funeral was held and people who attended the funeral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before returning to their hometowns and spread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Manse Movement.

The second stage of the March 1st Movement was around March 10th, when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to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with students, merchants, and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strike. The third stage was the expansion of Manse protests to rural areas after mid-March. The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is that the scale of the protests increased after the participation of farmers. In some instances, they armed themselves with clubs and bamboo spears and attacked local government offices. this resulted in a partial phenomenon of violent struggle.

The picture depicted is a scene from the March 1st Movement in Seoul, where the Manse demonstration is being carried out in a peaceful mann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however, responded to the March 1st Movement with a ruthless suppression of force. Peaceful protesters were fired upon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Cheam-ri in Hwasöng, Aunae in

Ch'önan, and Kwaksan in Chöngju. The Japanese arrested protesters and subjected them to harsh torture. During the three-month crackdown, more than 15,000 people were injured, and 7,500 died. Over 40,000 people were imprisoned, and churches, schools, and private homes were burned down. Yu Kwan-sun, who was imprisoned for her involvement in the Manse Movement incident in Aunae, Ch'önan, was a 17-year-old female student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On April 1, 1919, the T'aegükki (the national flag of Korea) was prepared for the Manse Movement with the initiative of thousands of participants. Unfortunately, the Japanese police cracked down on the protest, resulting in 19 fatalities and over 30 serious injuries. Yu Kwan-sun led the Manse Movement, while being imprisoned on March 1, 1920, unfortunately she died in prison at the age of 18 due to torture and malnutrition.

Let us summarize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First, it was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intellectuals but also workers, farmers, and various classes, making it the largest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country. Secondly, It strongly demonstrated the people's will and potential for independence. Thirdly, it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systematic and organized independence movements. Lastly, the March 1st Movement became the foundation for various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in the 1920s.

However, the March 1st Movement had limitations, which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ly, there was a lack of a systematic leadership organization, leading to a lack of unity and cohesion in the form and method of struggle. Secondly, the representatives, predominantly centered around religion, advocated for a peaceful petition for independence, failing to effectively harness the people's willingness to fight against Japan. The cre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responded to these limitations allow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armed struggle and skill training.

3차시 상처 입은 개인을 위한 문학

Today, let's examine Korean literature under the theme of "Literature for the Wounded Individual."

In the 1910s, modern literature was not just about art for art's sake. Instead, it was driven by the intellectual perspective of patriotic enlightenment, whose preoccupation was to spread civilization and patriotism. Young intellectual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 groups, faced a lot of pressure to promote civilization and patriotism, leaving little room for self-expression in literature or pure art that was seen as impractical.

To illustrate this, let's examine two works from the 1900s. One is the "National Anthem" song published in the 1908 magazine <T'aegük Hakbo>. At that time, many lyrics titled "National Anthem" were released, and this song was one of them. Although it is a lengthy piece, I will read verses 5 and 6.

"The National Anthem"

I love my country, who else loves my country?

Even if I die, may my country endure, and its path remain steadfast.

If our civilization thrives and our independence is proclaimed,

It is always joyous to behold a radiant nation. It brings honor to our country.

It's this kind of work. This type of work embodies the essence of patriotism, which is straightforward and simple. You can observe that the content is simple and the expression and sentence structure are repetitive. This is because the intended audience was not intellectuals, but rather a

general audience, who were considered to have a lower level of education compared to intellectuals. The language was chosen to be easy to understand, and not sophisticated, to cater to this target audience. The poem lacks the depth, nuance, individuality, and appeal of language. However, the message is easily understandable and has a clear impact to be directly delivered to the readers.

The next work is a "ch'angga" piece written by Ch'oe Nam-sŏn during the same period. It is structured in 7-5 mode tyle, which corresponds to 7 syllables and 5 syllables. Although it is a lengthy piece, I will read only one section.

"The Song of Kyŏngbu Railway"

One day, we gained a new spirit,
We will recover all that was lost before.
We will be able to manage our affairs with our own hands,
Will our country then look like truly ours?

The work "Song of Kyŏngbu Railway" by Ch'oe Nam-sŏn is a lengthy piece with a total of 268 lines, enough to be published as a standalone book. The work praises the greatness of the Kyŏngbu Railway and civilization, and its mechanical repetition of 7-letter and 5-letter format is a formal feature. The Kyŏngbu Railway was built by the Japanese. However, the Kyŏngbu Railway was praised by Koreans in this work, despite borrowing the power of foreign powers. So, the lack of historical consciousness in this work was also criticized. The focus of the work was mainly on enlightening and educating about civilization, lacking poetic perception, aesthetics, and expression of individual emotions. are characteristics in this work.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national sovereignty was

totally lost and the Great Han Empire, the center of patriotic enlightenment, disappeared. Paradoxically, however, this perio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modern individuals to express their inner selves freely, without obligations to the state. Although this freedom was marked by deep tragedy inside. In the midst of chaos and turmoil, individuals were forced to rely on themselves without the support of a state. This led to a strong manifestation of the individual's subjective will. The birth of free poetry, characterized by this kind of individuality, emerged in April 1914 through the organization <Hak chi kwang> of the Chosŏn Student Abroad Association.

Free poetry refers to a more relaxed form of rhythm than formal poetry, and its defining feature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emotions. In the mid-1910s, new poets emerged through media outlets such as <Hak chi kwang> and <T'aesŏ Literature Sinbo>. These poets rejected the enlightening style of their predecessors, such as Ch'oe Nam-sŏn and Yi Kwang-su, and introduced a new poetic language that differed from everyday language. At the time, the genre of modern poetry had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enlightened speech and argument were dominant. The new poets challenged these prevailing enlightened views and theories, and sought their own aesthetic independence.

This is a piece of free poetry written by poet Kim Ŏk and published in May 1915. Some scholars consider this work to be the beginning of free poetry and hold it in high regard. I will now read a portion of the work in prose form.

"Night and Me"

The night has arrived, and the same dark night reaches the distant room at any time.

As if it were an endless sprinkle of silver powder, white snow covers the vast and empty fields.

The trees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morning sun's bright light, and the shrubs are shrouded in fear and darkness.

People struggle against the night's silence with a feeble and weak fire.

However, the approaching sorrow and loneliness inch closer.

The hazy, dim moon shines 'pakam'—which means to be faintly light.

The hazy, dim moon shines its faint light.

The heavy and thin wind brings a boundless kiss and whispers to everything.

The sound of my long dear echoes in the air.

Is it real? Is it a dream? Is life meaningful or without it?

Compared to the enlightening works that were discussed earlier, like "National Anthem" or "Song of Kyōngbu Railways", this poem is not easily understood. The language used in this work is vastly different from those. Kim Ŏk does not express or explain his feelings directly, but instead shows them through concrete and sensory images. The setting of the night and darkness symbolizes the speaker's psychological conflicts and concerns. The speaker's worries and conflicts, awakening from those illusions, and the journey to finding meaning in life, are depicted through this symbolic space.

Following the release of <Ch'angjo (Creation)> in February 1919, other literary magazines such as <P'yehö (Ruins)> and <Paekcho (White Tide)> were published. These literary magazines served as pioneers in the development of new, modern literature. Through works like "Fireworks" by Chu Yo-han in poetry and "The Sorrow of the Weak" by Kim Tong-in in novels, they presented a higher quality work of both content and form as a model for new literature. They criticized the enlightening literature of Yi Kwang-su and Ch'oe Nam-sŏn as being limited to the perspectives of those who are not active in practical affairs. They sought to challenge the prevalent view that literature is merely a leisure activity for those with no responsibilities, and worked towards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literature. Kim Tong-in and Chu Yo-han initiated the movement of the

modern novels and free poetry in Korea and their works can be considered to mark the start of modern literature in Korean.

On the screen, you can see the representative literary coterie magazines <Creation>, <Ruins>, and <White Tide> in the early 1920s. Each magazine was headed by a group of literary figures with a distinct orientation. During the time when modern Korean literature was still in its early stages, these journals served as a sort of textbook.

Let's examine the works of Pak Chong-hwa and Yi Sang-hwa, who are among the prominent poets of the literary coteries. One such work is Pak Chong-hwa's poem "Return to the Chamber," which was published in the first issue of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White Tide>. I will now read a portion of this poem.

"Return to the Chamber"

The wail of the soul roams through the room where the bees dream without hesitation

Rambunctiously shaking the house of evil deeds

People are heard laughing mockingly as they gather around the cruel cup and dish

Oh, I return to my dark, gloomy chamber, where the scent of wild chrysanthemums lingers

Oh, give me true life, spider

If that cannot be obtained in this world

Then give me the key to the land of death,

I seek to find the place where true life exists. ("Myöngbu" means otherworld)

I will become a pilgrim of the afterlife.

The "milsil (hidden chamber)," which is set as the object of longing in Pak

Chong-hwa's poem that was read together, is a space where true living is finally possible, while being a place to enjoy true living. At the same time, it feels like a space with true voice, like sincere self-expression, and true tears, like genuine self-emotions. For poet Pak Chong-hwa, the hidden chamber is a room for dreaming. It is longing for one's own ideal and inner sanctuary. However, this space is said to be "evil deeds," "the cruel cup and dish," That is, it is trapped in a decadent reality. The poet is rather imagining a new chamber of his own than that decadent reality. In this work, "the chamber where the scent of wild chrysanthemums lingers" means death. The expression that this death is a space that makes true living possible is an imagination that dying is better than living.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poet's intention to express critically that the world outside the hidden chamber, that is, the real world, is in fact impossible to live a true and genuine life.

To summarize, for poet Pak Chong-hwa, the space referred to as "chamber" was a kingdom of eternity outside the harsh reality, and was connected to the world of death. This has also been represented as images such as caves or dreams in the works of other poets in <White Tide>.

To compare with Pak Chong-hwa's "chamber", we will examine "bedroom" by Yi Sang-hwa. This work is part of the 1923 published work "Into My Bedroom". Let's read it together.

"Into My Bedroom"

Madonna, cross the bridge of fear and sleep and be in my bedroom, which has no door.

Oh, the wind is blowing, come to me lightly, my lady, are you coming?

Madonna, am I crazy, that I hear a sound that does not exist,

Blue blood is flowing in my body, it seems that my heart and neck are burning.

Madonna, I can never go there someday, but if I do, let's go together not by

being dragged.

You, my love Maria, believe in my words – know that my bedroom is the cave of resurrection ...

The space described as the bedroom in Yi Sang-hwa's poem, which is ultimately set as the cave of resurrection, is not a space of pleasure and decadence but rather a symbolic space that the speaker himself has not yet reached or realized. Therefore, the emotional expressions and statements in this work can be seen as expressing the unfulfilled longing for an unrealistic space.

4차시 궁핍한 시대의 시인 되기

Kim Ŏk introduced European Symbolism poetry through the magazine <T'aesŏ Munye Sinbo> and published the first translated poetry collection <Onoe ũi mudo (Dance of Anguish)>.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 pioneer of modern poetry. He was the teacher of poet Kim So-wŏl at Osan School in Chŏngju, P'yŏnganbuk-do and discovered and nurtured Kim So-wŏl's literary talent. Later, he also published the posthumous <So-wŏl Poetry Collection> after Kim So-wŏl's premature death, to keep the memory of Kim So-wŏl alive and introduce him to the public again.

Kim So-wŏl was influenced by his teacher Kim Ŏk to some extent, leading him to publish many works based on the 7.5 meter form of folk song rhythm. Kim So-wŏl's works express the commonly shared emotions of Koreans such as parting, sadness, and the pathos of "han (pent-up grievance)." Kim So-wŏl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oets representing the 1920s. The world in Kim So-wŏl's poetry reveals a longing for a simple and innocent world of nature, while also strongly expressing feelings of disappointment, nostalgia, resentment, self-blame and other sources of conflict. This reflects the lament of the modern individual who experiences both the yearning for a pre-modern ideal and the reality of its loss. Among many of Kim So-wŏl's works, the work most loved by readers is "Chindallaekkot (Azaleas)". Let us take a slow look at the complete work.

"Azaleas"

If you would go, Tiring of me, Nothing will I say.

I shall pick azaleas, At the Yaksan, Yungbyun, And deck the path you tread.

Tread gently, On my azaleas, Where the path is decked.

If you would go, Tiring of me, No cry shall you hear of mine.

The poem "Azaleas" by Kim So-wöl depicts the feelings of a speaker who is facing separation. The speaker expresses strong feelings of attachment and obsession towards the person they are separating from. On the surface, the poem seems to express a conformist or submissive attitude of "I will send you off," but beneath that, emotions such as regret, resentment, self-blame, and convoluted conflict are revealed. The speaker realizes that the person s/he is separating from will leave him or her, but s/he cannot let go of the loved one, which is expressed in a very personal and unique way. The next poem by Kim So-wöl is "Sanyuhwa (Flowers on the Mountain)." I will now read the full poem.

"Flowers on the Mountain"

Flowers bloom, On the mountain. Spring, summer, autumn, They bloom.

Flowers bloom, On the mountain. Where nobody sees, alone, They bloom.

Along, but for the tiny bird, On the mountain, Living there, loving them.

Flowers fall, On the mountain. Spring, summer, autumn, They fall.

The poet, Kim So-wöl, employs a very plain language. The naturalness of everyday language can be considered a major feature of Kim So-wöl's poetry. "Flowers on the Mountain" talks about the order of a cyclical nature, while simultaneously suggesting that the interiority of the subject, located outside of nature, is observing it from a distance. The phrase "The flowers blooming on the mountains bloom alone" appearing in the second verse highlights the distance between the speaker and the flowers, the flowers blooming alone from the speaker's perspective, the distance of observation, and then the flowers blooming alone, separated from other flowers. This

expression embodies a multi-faceted representation that permits diverse interpretations, yet it unequivocally implies solitude. This par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s the primordial loneliness that the modern individual cannot avoid feeling. If one were to look at the pre-modern landscape, it would end with "the flowers are beautiful, nature is beautiful." However, the fact that it is being looked at with a lonely gaze is a significant point that makes this work by Kim So-wŏl a modern piece of literature. The world shown in Kim So-wŏl's "Flowers on the Mountain", thus, is not simply a representation of an idealistic and cyclical depiction of perfect nature, but rather the implicit expression of a harmonious and perfect order that has been destroyed through the processes of modernization or colonization. The feeling of not being able to enjoy the beauty of the flowers in their natural state is evident. As a result, a primal solitude intervenes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never closing the gap. The expression "chŏmanch'i," used in this work, can be referred to as a phrase that embodies the feeling of distance and solitude. There is a philosophical term "p'it'usŏng (throwtness)," meaning to be thrown into a cruel world. The consciousness of the poet, who says that "throwtness," or being thrown into this rough world and into solitude like a flower, is well expressed in this poem. Next, let us read Kim So-wŏl's work titled "Ch'ohon (Calling Back the Soul)".

"Calling Back the Soul"

Oh, shattered name. Oh, the name that parted in the air.

Oh, the name without an owner. The name I will die calling.

I could not finish the last words. I had in my heart.

The one I loved. The one I loved.

The red sun is hanging from the western summit. The herd of deer also cry sadly.

Atop the mountain that's sitting, fallen off to the side, I call your name.

I call your name till I can't bear the grief of it.

The sound of my call sweeps forward but sky and earth are too far apart.

Though I turn to stone standing here The name I will die calling.

The one I loved.

Kim So-wöl's "Calling Back the Soul" is based on a traditional Korean funeral process. In the traditional Korean funeral process, the "ch'ohon" is the act of carrying the deceased's clothing to the roof and calling their name three times facing north. Kim So-wöl uses this as a metaphor for the poignant sorrow of a failed love. The act of summoning the deceased, despite denying their death, creates a paradoxical and conflicting emotions about accepting the death. This results in a dramatic representation of a complicated, contradictory emotional state.

The second poet to be analyzed is Han Yong-un. Han Yong-un was a Buddhist monk and was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l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He can be considered as a independence activist who participated as a representative of Buddhism. Han Yong-un had limited involvement in literary activities however, he is a significant poet who published the important poetry collection <Nim üi ch'immuk (Your Silence)> in the 1920s. If we were to list the two most significant poetry collections representing the 1920s, one would be <Azaleas> and the second would be <Your Silence>. Kim So-wöl received guidance and support from his teacher Kim Ŏk, while Han Yong-un did not directly learn from him bu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Indian poet Tagore. Tagore, who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was the first Asian to receive the award and became very famous, traveling to Japan to give lectures, and being widely covered in the Japanese press and colonial Korean press,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an Easterner winning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fter seeing Tagore's works, Han Yong-un was inspired to write similar works. Han Yong-un was inspired by the spirituality of the poems of Tagore and the ways of making the spiritual content accessible in the form of love poems.

However, Han Yong-un wrote works that were more deeply rooted in the national reality and directly addressed social and historical issues. In his works, Han Yong-un sought to artistically combine Buddhist thought and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 works are characterized by themes of freedom, equality, and popular orientation, all based on a Buddhist worldview. Furthermore, the works are imbued with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at actively responds to the reality of nationalism and history. The first characteristic of Han Yong-un's poetry is that it is primarily composed of Buddhist metaphors and highly symbolic techniques. The second feature is the emergence of a feminine tone, which is influenced by Tagore, as well as by Buddhist influence represented by Bodhisattva Avalokiteshvara. This is how it is interpreted. A representative work of Han's is "Your Silence". Although the entire work is rather lengthy, let's slowly enjoy it together.

"Your Silence"

Love is gone, gone is my love.

Tearing himself away from me he has gone on a little path that stretches in the splendor of a green hill into the autumn-tinted forest.

Our last oath, shining and enduring like a gold-mosaicked flower, has turned to cold ashes, blown away in the breath of wind.

I remember his poignant first kiss and its memory has wrought a complete change in my destiny, then withdrawn into oblivion.

I hear not his sweet voice; I see not his fair looks.

Since it is human to love, I, alert, dreaded a parting to come when we met.

The separation came so suddenly it broke my heart with renewed sorrow.

Yet, I know parting can only destroy our love

if it causes futile tears to fall.

I would rather transfer the surge of this sorrow onto the summit of hopefulness.
As we dread parting when we meet, so, we promise to meet again when we part.
Though my love is gone, I am not parted from love;
an untiring love-song envelops the silence of love.

In Han Yong-un's "Your Silence," the loss of you, your disappearance, is a central motif that becomes repetitive. The speaker believes in a paradoxical faith that, although you are gone, they did not send you away. The dynamic language and imagination, with the aim of revisiting the pain of separation and trying to reverse it to a reunion, is based on the transcendental imagination typical of Buddhism.

Buddhism is familiar with expressing an ironical imagination through its Zen and a transcendental approach, different from everyday language. This characteristic is reflected to some extent in the imagination of the poet Han Yong-un. The expression of turning the center of the mind is a Buddhist expression. The poet attempts to stylize Buddhist transcendence, which goes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presence and loss,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meeting and separation, into a poetic form. The concept of transcending the boundaries between material and immaterial, as described in the phrase "Saek chüksi kong (all things are equal in the realm of emptiness)," is incorporated into the technique of the poem. The spirit of the Buddhist disciple who strives to control the mind that is heading to the extreme, through which the unique poetic tension is demonstrated, is considered to b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et Han Yong-un. Now, we will read his another work "I Cannot Tell," which well showcases Han Yong-un's poetic world.

"I Cannot Tell" (Translated by Suh Ji-moon with James Wade)

Whose steps are these, the paulownia leaves that fall silently,
drawing vertical ripples on the windless void?

Whose faces are they, the scraps of blue sky that peep through rifts in fierce
dark clouds,

pushed away by the zephyr at the end of a long spell of rain?

Whose breath is it, this nameless fragrance that touches the silent sky above an
ancient pagoda,

brushing past the thick green moss on the flowerless old tree?

Whose songs are those, the dips and turns of the thin rivulet born of no known
source,

that makes the stones and pebbles sing as it journeys past?

Whose poems are these, the evening twilight that adorns the fading day,

treading the brinkless sea with lotus heels, caressing the rimless sky with jade
fingers?

The burnt ashes feed the lamp again.

Over whose night does this frail lamp of my heart keep sentinel, this heart that
will never cease to burn?

The poem's content is highly philosophical, but it is relatively well-received as it uses nature and daily life as its subjects. The poet Han Yong-un considers that the concept of the self, or the ego, is not a fixed entity but rather a possibility. The poet posits that transcendence of the self through sacrifice, or the ego's relinquishment, is possible. From a Buddhist perspective, the ego can become anything through sacrifice and limitless expansion of the self can be achieved. The poet suggests that the transcendent existence beyond various natural phenomena can be connected to

the self, and that the imagination in the work is seen as the transcendent existence infiltrating streams, leaves, and wind sounds. The loved one is to encounter the self at this ultimate point. the poet believes that the self and this loved one, or the transcendent existence are not different and are connected, and that thinking of the self as coexisting with this transcendent existence is a characteristic of his Buddhist imagination.

5차시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민족 문학

During the 1920s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i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streams. While resistance movements led by independence groups primarily focused on armed struggle abroad, the main streams of resistance domestically were the class struggle and the practical education movement. The practical education movement held the somewhat moderate belief that in order to achieve future independence one must first develop their innate abilitie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resistance and struggle. This movement primarily emphasized the cultivation of each individual's capability through educ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class struggle aimed to improve the immediate reality faced by the Korean working class and farmers, and advocated for direct, proactive social mov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at is, the socialist independence movement. Considering the colonial situation where the majority of landlords and capitalists have already been replaced by the Japanese, the class movement for workers and farmers against capitalists was nothing but resistance to the Japanese. This is because all the capitalists were Japanese. Rather than the armed independence struggle of the independence army that is only occasionally encountered through news from a distance, the socialist movement that fights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for immediate survival and existence, was a more perceived form of independence movement among the people in colonial times.

After the mid-1920s, in colonial Korea, socialism became a major trend and socialist intellectuals gained significant popular support. At the center of this trend was KAPF, or the Korean Artists Proletarian Federation, founded in 1925. This organization was the result of the merger of two groups, the

"PASKYULA" group, originally led by literary figures such as Pak Yŏng-hŭi and Kim Ki-jin, and the "Yŏmgunsa (Society of Sparks)" group, which was led by socialist activists. In the beginning, the KAPF's activities were centered around the criticism of Pak Yŏng-hŭi and Kim Ki-jin and the novels of Ch'oe Sŏ-hae. Poetry took a comparatively minor role at the time. The KAPF aimed to directly address real-world problems and thus produced works that were historically significant, such as novels that were both meaningful in a literary and political sense. Many significant works were published by writers affiliated with the KAPF, which are important piec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the works of poetry did not demonstrate a certain aesthetic achievement, and there was no poet who gained significant public empathy. Let's take a look at one representative example. Let's take a look at the work of poet Ryu Wan-hŭi, "The Declaration on the Street."

"The Declaration on the Street"

People, people, let's march forward resolute! Forward, forward,

Let the sound of the city's people and the countryside's people become more magnificent!

Let's breathe the earth's air more deeply! The advance of the people, the firmness of their progress.

We applaud this! We bless it!

The poets associated with KAPF generally perceived literature as a political means or tool,

which resulted in a tendency to thoroughly ignore the artistic quality of poetry. The poetry of KAPF had little difference from political leaflets and pamphlets, manifestos, and propaganda, and had similarities with the enlightenment poetry of Ch'oe Nam-sŏn and Yi Kwang-su in the 1900s.

Most of the poems in the KAPF camp lacked rhythm and metre,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even metaphors and images in them. The dominant expression of hatred and animosity in their content made it difficult to gain widespread empathy.

We can see evidence of their effor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e short epic poetry works of poet and critic Im Hwa. Im Hwa's several works published in the late 1920s were evaluated as a new model of poetry in the KAPF camp. In Im Hwa's short epic poetry works, the author tries to tackle realistic stories that are easy to empathize with, by incorporating storytelling elements and plot elements to make them engaging. This is a new form that also expresses a class-based vision and romantic perceptions about revolution. While overcoming the emotional excesses of the coterie poetry groups in the 1920s, the author sought to gain popular empathy by introducing narrative elements. Let's read the most representative work among Im Hwa's short epic poems, "My brother and the charcoal brazier."

"My brother and the charcoal brazier"

Brother, but don't worry.

I am a girl who shares the same blood with such a brave young man like you,
brother

And Yǒngnam, he is your brother, who brought home the turtle-patterned brazier,
the one that you always praised.

Oh also, brother, a while ago the rest of your young friends came by.

They brought tearful words of you, their comrade and our brother.

They were loving, brave young men, the bravest young men in the world.

Even though the brazier is broken, don't the fire tongs remain like flag poles?

Brother, you left but our cute pioneer Yǒngnam is here

And my breast, the breast of a sister, is still warm, for all the young pioneers.

This work is a story in letter form centered around the speaker, the sister, who writes to her older brother who is in prison. The older brother was a worker at a cigarette factory and was involved in a labor struggle, where Korean workers fought against Japanese capitalists. As a result of this struggle, the older brother was imprisoned and the sister and her younger sibling had to make ends meet while dealing with the difficult living conditions. The letter expresses the sister's love and belief in her older brother's struggle and her determination to never lose hope, despite the challenges they face. The interesting story form evokes empathy while effectively representing the strong class consciousness and determination to struggle of the workers. Now, let us read another work of Im Hwa's short epic poem, "Suni of the crossroads".

"Suni of the crossroads"

Suni, sister, A working youth, lover of a brave man...

Think about it, today your precious, brave man

With the same hands he used fighting in his youth

He will be writing a calendar on a brick wall with the blood of the young

Look at this, come on. This man is also like your brother...

The only thing left is a dirty necktie, isn't it!

Oh, like a 'truck', the snow blurs your vision as it roams the streets.

Good, isn't that Chngno intersection?

Come on, you and I will join hands like lightning and go in the dark alley with the rest of our friends to plan for the next day.

To find your man and the brave lovers of all the working women...

Isn't this the true, joyful youth for you and me?

This piece is in the form of a letter and depicts an older brother comforting his younger sister who is heartbroken after her lover was sent to prison. As seen in the previously examined works, it gives the feeling of a letter. It sets up a typical and universal situation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that era. That is, the work is not a story about someone the poet directly witnessed. It deals with the story of Korean youths who were forced to work and were exploited in a Japanese-owned factory during that time. It established a typical character model based on the most representative individual. So, through this typical situation and character type, the poem aims to reveal the contradictions of the colonial era and to demonstrate the historical mission of how young Koreans should live during that time. It effectively portrays the tragic realities of life,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s of class. This was a completely new and sensational form of expression that was not shown by other KAPF-affiliated poets before Im Hwa. Im Hwa's poetry gained great popularity and was highly praised by many poets. However, while Im Hwa's poetry garnered sympathy, it lacked the concrete representation of practical actions, proactive engagement, or resistance on site. This can be evaluated as a limitation.

In the left-wing of domestic resistant literature, there was KAPF-affiliated literature. On the right-wing, there were figures and currents referred to as "Kungmin munhak (national literature)" group. After the establishment of KAPF, socialist-affiliated literature, or Proletarian literature became the trend. The established literary figures in colonial Korea felt rejection towards it. In response to this literature, the "Kungmin munhak (national literature)" group emerged. The central figures in this group were the established literary figures, led by Ch'oe Nam-sŏn and Yi Kwang-su. The most representative and central idea of their orientation was reflected in the "Sijo Revival Movement." The National Literature group claimed it to be a new alternative that could overcome the individualism and romanticism of poetry in the early 1920s and also the rigid language and confrontational language of the KAPF-affiliated literature.

They argued that "sijo" is a form of expression that can embody the land, life, and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language and rhythm of Korea, in a way that is inevitably suited to the era. The National Literature group argued that the sijo is the most appropriate form for expressing the spirit of national literature and strongly advocated for this. An example of a contemporary "sijo" that showcases a new form is the work "Dawn Road" by the sijo poet Yi Pyŏng-gi. Let us read it together.

"Dawn Road"

I will walk the path I couldn't at night in the dawn.

If I get enough sleep, how can I easily handle the busy day?

No matter where others go, I will go my own way

How could the crowing of the rooster in the village awaken the entire city of Seoul?

Even though the stream beneath the wall flows quietly.

Who will lean their ears and listen to it?

The person who rushes as soon as the store door opens

The person who stumbles along unsteadily while carrying a swaying yoke filled with water.

All are my fellow travelers on the road of dawn.

This is a modern "sijo" work that describes the daily life of dawn.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sijo" revival movement when led by Ch'oe Nam-sŏn and Yi Gwang-su,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from the classical and regular "sijo" of the Chosŏn Dynasty. However, Yi Pyŏng-gi was a poet who fearlessly called for the innovation of "sijo" and showed a new model, new theme, and new expression method of modern "sijo". By presenting new

sensations and modernistic sensitivity that couldn't be seen in classical "sijo," he became the key poet of the "sijo" revival movement.

讲义

1차시 국권 상실과 한국인의 저항

大家好, 我是江南大学的卢春基. 今天的讲座将了解一下"国权的丧失与韩国人的抵抗". 19世纪后期, 韩国忙于应付西方列强的门户开放要求. 为了应对作为西洋文物与体制的先锋的西学, 即天主教, 东学应运而生. 东学的梦想是万民平等. 1894年, 为反抗残暴的官吏以及外国势力的掠夺, 全罗道爆发了东学农民运动. 他们反抗政府的统治, 要求进行社会改革. 朝廷匆忙向清政府要求派驻援兵, 日本的军队也在仁川登陆. 农民军担心国外势力的干涉, 同意了政府的协商案, 自行解散. 甲午中日战争爆发后, 韩国变成战场, 日本也开始强化对韩国内政的干涉, 因此, 9月下旬, 农民军为抵抗国外势力的入侵而再次起义. 但农民军却大败于日军, 第二次起义失败. 这是领导东学农民运动的绿豆将军全琫准被捕后被押送到首尔的情景. 因他在日本也很出名, 听到他被捕的消息后, 日本记者赶来拍下了这张照片. 全琫准被捕后, 自称将军, 一直保持着东学领导人的尊严,

1894年, 日本赢得了甲午中日战争的胜利. 由此, 日本在朝鲜获得了比其他列强更优越的地位. 随后, 1904年2月, 日本掀起日俄战争, 并向大韩帝国派遣了大量军队, 最终也赢得了这场战争.

本来大韩帝国宣布了中立, 但日本以军事威胁为基础, 强迫大韩帝国签订了《韩日议定书》. 通过此协议, 日本获得了在日俄战争中, 使用韩国军事基地的权力, 大韩帝国的中日宣言也被宣布无效, 这成为日本后来入侵韩国的跳板. 不久后, 日本便宣称为了改革韩国的财政与外交政策, 应该聘请外国顾问, 并于1904年8月强制签订了相关协议. 这是第一次韩日协约.

由此, 日本掌握了大韩帝国的财政、外交、军事与警察. 日本为了对大韩帝国进行殖民, 依次得到了列强的外交承认. 1905年7月, 与美国签订了《雅尔塔密约》, 同年8月, 与英国缔结了"第二次英日同盟". 这是为了让美国与英国从外交上默认日本对大韩帝国的统治. 此外, 1905年9月, 日本与俄国签订了《朴茨茅斯条约》, 成功地将俄国势力也赶出了大韩帝国. 由此, 日本得到了国际的承认, 开始对大韩帝国殖民.

1905年11月, 日本胁迫高宗、收买大韩帝国的亲日官僚, 缔结了《乙巳条约》, 即第二次韩

日条约. 由于这次条约是非法的, 也是被强制签订的, 因此, 也被称为勒約. 意思是被强迫签订的条约. 这是为了纪念这一天而拍的照片, 主导了条约签订的伊藤博文坐在了正中间. 由此, 我们也可以明白, 以后安重根为何狙击了伊藤博文. 1905年11月, 日本胁迫高宗, 收买大韩帝国的亲日官僚, 签订了第二次韩日协约, 即乙巳勒約. 此条约签订后, 大韩帝国丧失了国家主权的核心——外交权. 沦为日本的保护国, 事实上成为日本的殖民地. 国权被篡夺, 只剩下了国名.

日本设置了统监府, 对大韩帝国进行统治. 对此, 记者张志渊在报纸上发表了一篇名为《是日也, 放声大哭》的文章, 意思是“今天应该放声痛哭”, 引起了很大反响. 此外, 反对乙巳勒約的多种抵抗与运动也在全国蔓延开来. 还有的志士用自杀抵抗《乙巳勒約》. 代表性人物是李汉应. 第一次韩日协约签订后, 列强拥护日本的利益, 剥夺韩国的外交权, 李汉应对此进行了抗议, 最终自尽, 他的自尽在反对乙巳条约等爱国运动上起了非常大的作用. 以后, 闵泳焕、赵秉世、洪万植、李相哲、金奉学等人皆以死抵抗乙巳条约的签订. 他们的自尽是国民抵抗运动的火种.

《乙巳条约》签订后, 国权恢复运动从爱国启蒙运动与义兵运动两方面展开. 我们看一下爱国启蒙运动. 门户开放后, 韩民族在相当长的时间内遭受列强的侵略, 尽管进行了顽强的抗争, 仍被日本帝国主义夺取了国权, 这是因为力量与实力的不足. 这是爱国启蒙运动的基本意识.

其内容是, 首先, 在国内展开自上而下的事业, 培养民力, 同时, 培养青少年, 为国权的恢复, 培养新的民族干部. 第二, 在国外, 以武官学校为中心, 创建独立军基地, 培养独立军, 准备复国力量. 第三, 当日本被卷入战争难以自拔时或韩民族的势力大幅提高时, 独立军挺进国内, 展开独立战争, 国内对积蓄的民众力量进行总动员, 内外呼应, 赶走日本帝国主义侵略势力, 恢复国权.

义兵运动是为恢复国权而立即展开的抵抗. 谴责日帝的侵略, 要求废止条约的义兵运动在多个地方兴起. 闵宗植放弃官职, 率领义兵, 占领洪州城, 抵抗日军. 平民出生的申弼石聚集义兵, 在平海、蔚珍等地活动. 崔益鉉以74岁高龄在顺昌与官兵对峙, 但由于不认同族相残而被俘, 被抓到对马岛后殉节. 在乙巳勒約签订后, 高宗仍不予承认. 1907年6月, 高宗宣布乙巳勒約无效, 为号召守护大韩帝国的主权, 派特使团参加荷兰海牙的和平会议. 但日帝发现了这件事, 以此为借口, 强制高宗退位, 让纯宗即位.

被派往海牙的李相高、李俊、李玮钟揭露了《乙巳条约》的非法性, 展开外交活动, 向列强呼吁恢复韩国的国权. 但未得到列强的反应, 没取得任何成果. 因为英国、美国、俄罗斯等都已秘密与日本签订了协议. 在迫使高宗退位, 扶持纯宗即位后, 1910年7月, 日本强制签订了《韩日

新协议》，合法掌握了韩国的内政统治权。

8月，又用一个月的时间强制解散大韩帝国的军队，随后，总理大臣李完用与寺内正毅统监秘密签订合邦条约。由此，大韩帝国完全沦为日本的殖民地。合并后，统监府改成总督府，成为殖民统治的本部。第一代总督是曾经的统监寺内正毅。乙巳勒約后，依仗统监府的保护与援助，确立了对韩国经济统治的日本资本家在1910年合并后，掌握了金融、矿业、林业、渔业、运输、通讯等全部的产业。

日帝从1910年到1918年，在土地调查事业的美名下，确立了对韩国农业的统治体系，同时，掠夺了很多土地，大多数韩国农民成为日帝掠夺的对象。1910年12月颁布的《会社令》使韩国人几乎不可能成立公司。总督府还实施各种政策，在文化、教育等方面也抑制韩国的固有力量，破坏韩国的身份认同。

《私立学校令》颁发后，韩国人为主体的教育机构无法继续存在。对舆论、出版的管制也越来越严格。此外，日帝还强制使用日语，禁止一切的集会，韩国民族文化与艺术的发展陷入困境。

2차시 3·1운동의 전개와 의미

本次讲座将考察3·1运动的展开及其意义.

1919年3月1日, 殖民地朝鲜爆发了全国性的抵抗运动. 我们看一下这之前的背景, 1919年, 巴黎和会召开. 美国的威尔逊总统主导了这次会议, 让殖民地民族自行决定自己的未来, 即民族自决主义, 是其核心内容. 此后, 这个原则成为很多新独立国家诞生的背景.

1910年韩日合邦后, 国内外很多团体与组织展开了独立运动. 1912年以儒生与义兵为中心的独立义军府成立, 1915年成立的光复会在满洲准备设立军官学校. 此外, 朝鲜国权恢复团、国民会、自立团等多种秘密结社组织创立, 他们以上海、美国、满洲、沿海州等海外为中心, 积极展开活动.

在国内, 抵抗日帝与日本地主的意识也达到高潮. 在日本东京进行的"2·8独立宣言"是3·1运动宣言《己未独立宣言》的母胎. 1919年2月8日, 在东京留学的朝鲜人学生600余人聚集在一起, 朗读独立宣言书, 呼吁朝鲜的独立. 主导这个宣言写作与翻译的人是已经因小说而扬名的李光洙. 宣言进行后, 日本警察强制解散了集会, 并拘捕了主导者.

《2·8独立宣言》的核心内容主要有四个.

第一, 韩日合并非出于自愿, 不利于民族的生存与东洋的和平.

第二, 朝鲜民族要求自主召集大会, 自行决定自己的命运.

第三, 巴黎和会的民族自决原则应该适用于朝鲜民族.

第四, 拒绝前面要求的话, 将与日本血战到底.

年轻留学生主导的这个《2·8独立宣言》内容非常明确, 也表达了强烈的意志. 这是在东京参与《2·8独立宣言》的主要人物. 他们冒着被警察逮捕的危险, 在日本的心脏东京勇敢地主张朝鲜的独立, 这是我们需要铭记的事实.

而且国内爆发3·1运动后, 他们立即组织留学生在日本展开同盟休学运动, 一部分人甚至回国参加了3·1运动.

我们看一下3·1运动的准备过程. 首先, 1918年6月, 吕运亨、金奎植等人在上海组建了新韩

青年团, 会见了威尔逊总统的特使, 转达了《独立申请书》, 并派金奎植参加巴黎和会. 此外, 1918年12月在美国成立了以安昌浩为中心的朝鲜民族协会. 他们决定派李承晚赴巴黎, 向威尔逊总统提交独立申请书. 此外, 在满洲与沿海州, 1918年12月, 撰写出最初的大韩独立宣言. 比《2·8独立宣言书》、《巳未独立宣言书》更早的《戊午独立宣言书》写于戊午年, 表明了强烈的武装斗争意志, 其特点是内容具备攻击性, 要求独立军进行斗争.

我们再看一下3·1运动之前的国内情况. 从1918年底开始, 天道教与基督教以及青年学生集团, 各自在准备独立宣言. 1919年1月, 高宗皇帝突然死亡的消息传来, 而且是被日本毒死, 这使反日情绪达到高潮, 以此为契机, 天道教、基督教以及学生代表从1919年2月开始进行统一运动. 他们在2月完成了《独立通告书》与《独立宣言》, 通告宗教界的组织, 事前散发宣言书, 做好了独立万岁运动的准备.

这是崔南善主导撰写的《巳未独立宣言书》. 与明确主张武装斗争的《戊午独立宣言书》以及1919年2月的《2·8独立宣言书》相比, 《巳未独立宣言书》的特征是, 以非暴力、和平的方式要求民族自决与自主独立. 3·1运动的整个过程大概分为3个阶段.

首先, 第一个阶段, 在已经准备好的首尔、平壤、义州、宣川、安州、元山、镇南浦等6个城市散发独立宣言书, 展开万岁运动. 这一时期, 学生起了主导性作用, 采取了非暴力的斗争方式, 3月3日是高宗的葬礼, 来到京城的人们参加了首尔的示威后, 回到各自的地区, 准备独立宣言书与万岁运动.

3·1运动的第二个阶段是3月10日前后万岁运动扩散到全国主要城市的时期. 此时, 以学生为中心, 范围扩大, 商人与劳动者等以罢工的形式开始参与.

第三阶段是3月中旬以后万岁运动扩大到农村地区. 这一时期的特点是, 农民参与后, 示威的规模变大, 他们用棍棒、长矛武装, 袭击了县事务所, 部分地方发生了暴力斗争的现象.

这是3·1运动爆发第一天首尔万岁示威的一个场景. 我们在照片中可以看到, 万岁示威运动以非常和平的方式在进行. 对于3·1运动, 日本总督府采取了非常残忍的武力镇压方式进行应对. 华城的提岩里、天安的阿乌内、定州的郭山等地, 对和平的示威队伍进行了枪击. 日本逮捕了示威者, 并且进行了严刑拷问. 在3个月的镇压过程中, 15,000余人受伤, 7,500余人死亡. 40,000余人被关到监狱, 教会、学校、民房被烧毁. 在天安的阿乌内, 因万岁运动被关到监狱的柳宽顺在3·1运动时是个年仅17岁的女学生.

1919年4月1日, 为了数千人参加的万岁运动, 她积极主导了太极旗的准备活动. 这一天, 因日本警察的强硬镇压, 19人死亡, 30余人受重伤. 1920年3月1日, 她在狱中还领导了万岁运动, 但因拷问与营养不足, 年仅18岁就在狱中殉国了.

我们整理一下3·1运动的意义.

3·1运动, 首先, 不仅是知识分子, 还是劳动者、农民等多个阶层广泛参与的最大规模的抗日运动. 第二, 3·1运动强烈地传达出民族独立的意志与实力. 第三, 打下了使独立运动深入大众的良好基础, 有体系的、有组织的独立运动成为可能. 第四, 3·1运动成为1920年代的多种社会运动与组织活动的基础.

不过, 3·1运动也有其局限性, 大致可以分为两种. 第一是缺乏系统的指导性组织. 因为缺乏指导性组织, 斗争的方式与方法未得到统一, 显得非常分散. 第二, 以宗教界为中心的民族代表固执于和平的独立请愿方式, 因此, 未能有效地指导民众的抗日斗争意志. 上海的大韩民国临时政府就是对此进行反思的基础上成立的. 由此, 统一领导独立运动, 以武装斗争与实力养成为主要内容的独立运动也实现了体系化.

3차시 상처 입은 개인을 위한 문학

今天讲座的主题是"抚慰个人伤痛的文学"。1910年代的近代文学不是由艺术家主导的,而是肩负爱国启蒙责任的知识分子主导的。

在爱国启蒙期,即1900年代,知识分子的主要任务是文明开化与爱国,包含留学生集团在内的青年知识分子有很大的紧迫感,他们需要主动成为宣传文明与爱国的人。所以,他们对毫无实用性的自我告白文学或纯粹文学很难感兴趣。

我们看一下1900年代的两个代表性作品。这是1908年收录在《太极学报》杂志上的歌曲《爱国歌》。当时,很多歌曲以《爱国歌》为题发表,这是其中之一。作品很长,我来读一下其中的第5节与第6节。

《爱国歌》

我的国家,我不爱,谁爱?

就算身死,也要长久保护我的国家,长久保护,

我们的国家发展了,我们的国家独立稳定时,

就是闪耀的荣华,永远快乐,国家光荣,国家光荣!

是这样的作品。这首作品内容非常简单。用一句话概括,就是爱国心。内容也很简单,内容的表达与句子的形式也一直在反复。为什么呢?那是因为它预设的读者不是知识分子,而是知识分子将比自己水平低很多的一般大众设定为读者、听众,才选择了最简单的语言与表述。作为诗歌作品,它在语言的凝缩性、紧张感等个性与魅力上,水准并不高,不过它所传达的信息,可以很容易听明白。可以说,它的传达效果非常鲜明。

下面这首诗是同一时期崔南善创作的唱歌歌词。这首作品是由7字与5字构成的7·5调。这首作品也非常长,我只选取了其中的一部分,我来读一下。

《京釜铁路歌》

何时我们也焕然一新，
收复失去之物
自己的生意自己做主，
自己的土地属于自己？

崔南善的《京釜铁路歌》共268行，非常长。一首诗的长度相当于一本书诗集的分量。这首作品的特点是机械地反复7·5调的格式。京釜铁路是日本人铺设的。从内容上看，这首作品是朝鲜人在歌颂借外国势力铺设的京釜铁路，缺乏历史意识，这是其缺陷。因过于注重文明的启蒙与教育等外部目标，在这首作品中，诗歌的认知、发现等美学、个性的感情表述等也很难被感知到，这是其重要特征。

1910年，韩日合并后，韩国完全丧失了国权。于是，爱国启蒙的核心——国家，即大韩帝国消失了。不过，出现了一个悖论，这一时期，即1910年以后，从对国家的义务中得到解放后，近代个人可以自由表达其内心了。当然，这个内心的深处，充满了悲剧色彩。在混沌与废墟中，失去国家，只能独立生存的个人主体意识开始强烈地表达出来。

具备这一特征的新诗，即自由诗的出现始于1914年4月创刊的朝鲜留学生学友会的机关刊物《学之光》。自由诗就是在格律形式上比格律诗自由的意思，但我们需要了解的是，自由地表达其中的感情其核心内容。

1910年代中期以后，通过《学之光》、《泰西文艺新报》等媒体，很多新诗人登坛。他们拒绝崔南善、李光洙等前辈的启蒙文体，而选择了与日常的、大众的语言有所不同的诗歌语言。当时现代诗歌的体裁特征尚未确立，当时的氛围仍是启蒙的舆论、启蒙的主张占主流。这些诗人一边与当时启蒙的视线、启蒙的论说进行对抗，一边追求自己的美学自律性。

这是诗人金亿在1915年发表的自由诗。这首诗很重要，有的研究者甚至认为这首诗开创了自由诗的先河。这首诗的形态是散文诗，我来读一下。

《夜与我》

夜来了，漆黑无边的夜，来到远方。
远处，宛如无尽的银沙，白雪覆盖着广阔而空旷的原野。

等待迎接朝霞的树木、草丛笼罩在恐惧与黑暗中，
人们伴着微弱的光，期盼与夜之寂寞斗争。
但，慢慢而来的哀愁、孤独也近了。
死一般朦胧的月亮，
依稀留下暗淡的光，
沉重的轻风带着无尽的亲吻，向所有人诉说，
飞向空中的你那久远的声音
是现实？还是托梦？是有意义的人生？还是无意义的人生？

与前面的后蒙作品相比，这首诗就难了。与前面的《爱国歌》、《京釜铁路歌》相比，诗歌语言非常不同，这一点，大家都能感受到。

金亿不直接陈述感情，也不予以说明，而是通过具体的、感性的形象，将感情形象化。作品的背景之夜与黑暗以及恐惧的空间，是为了将话者内心的痛苦与矛盾形象化而设定的象征性空间。话者内心的痛苦与矛盾承载的内容是，从迷梦中醒来，从梦中醒来，走向有意义的人生。

1919年2月，《创造》创刊，随后，《废墟》、《白潮》也开始发行。这些同人志起到近代文学基石与先驱的作用。他们通过朱耀翰的诗歌《焰火》、金东仁的小说《弱者的悲伤》等作品，把这些内容与形式都很成熟的作品，当作新文学即近代文学的榜样。他们批判李光洙、崔南善的后蒙文学为道学先生的代言者，并且拒绝接受。而且试图克服“文学不过是闲人的消闲之物”之类的观点。

金东仁与朱耀翰正式开启了近代小说与近代诗歌，我们可以这么评价。

这是1920年代初期的代表性同人志《创造》、《废墟》与《白潮》。每个同人志都是具备一定倾向的文人集团。那时，完全没有用韩国语创作的近代文学作品，这些同人志起到了一种教科书似的作用。我们看一下同人志文坛代表性诗人朴钟和与李相和的作品。

这是同人志《白潮》创刊号上登载的朴钟和的《回到密室》。我来读一下其中的一部分。

《回到密室》

魂的哭泣缠绕着蜜蜂做梦的屋子

嘈杂地摇晃着淫乱之屋
围坐在孤独的杯盘边，众人谈笑风生。
啊—我走了，朝我那漆黑的密室，回到我那弥漫着淡淡万寿香的密室。
奥— 蜘蛛呀，请给我真实生活。
如果这个世界没有，
请给我钥匙，给我死亡国度的钥匙。
我要找到有真实生活的地方，
成为冥府的朝拜者。

在朴钟和的这首诗中，被设定为憧憬对象的"密室"这个空间是可以真正生活，可以享受真实生活的地方，同时还是拥有真实的声音即坦诚的自我表达、哭泣即真正自我情感的空间。对朴钟和诗人来说，密室就是做梦的地方。这是在思念自己的理想之乡、内心的安息之地。但是，这个空间却被"嘈杂的淫乱"、"孤独的杯盘"即颓废的现实所包围。

诗人不愿在颓废的现实中生活，因而想象出自己独享的密室。作品中"弥漫着万寿香的密室"指的是死亡。死亡才是可以进行真实生活的空间，这个表述是诗人的想象，意思是，与其生不如死。

在密室外的世界，即现实的世界中，反倒无法真正生活，诗人通过这个表述，对此进行批判。

总结一下，对朴钟和诗人而言，密室这个空间是脱离残酷现实的永恒国度，它与死亡的世界相连。在《白潮》其他诗人的作品中也经常出现洞穴、梦等形象。我们在看一下李相和的"卧室"，与朴钟和的"密室"做一下比较。《向着我的卧室》发表于1923年，这是其中一部分。我们一起读一下。

《向着我的卧室》

甜心，没有人会越过后悔和畏惧的独木桥，来惊扰我的卧室。
啊，起风了！你随着清风飘来吧，我的宝贝，你正在来吧？
甜心，真可怜！我是疯了吗？我的听觉居然无中生有，

我全身的血液—心泉仿佛已干涸, 焦急如焚.

甜心, 既然迟早都要前往, 那我们走吧, 不要被拉去.

你是相信我的玛丽亚, 你应该明白, 我的卧室就是复活的洞穴……

李相和设定为"复活的洞穴"的卧室这个空间, 不是快乐与颓废的空间, 而是话者自己也无法到达的、未能实现的想象的空间. 因此, 可以说, 这首诗中激情澎湃的表达与陈述是对超现实空间未实现的快乐的憧憬.

4차시 공평한 시대의 시인 되기

金亿是一位非常重要的人物, 他通过杂志《泰西文艺新报》, 介绍欧洲的象征主义, 还出版了最早的翻译诗集《懊恼的舞蹈》, 是近代诗歌的开拓者. 在平安北道定州郡的五山学校, 他曾是金素月诗人的老师, 他很早就发现了金素月的文学才能, 并予以培养. 特别是, 后来在金素月诗人去世后, 他出版了其遗稿诗选《素月诗抄》, 重新向大众介绍金素月, 使金素月不被遗忘.

金素月诗人在一定程度上受到了老师金亿的影响. 所以, 发表了很多以7·5调民谣韵律为基础的作品, 而这正是金亿诗人常用的格律. 金素月诗人的作品大多表达了民族的普遍情感, 如分离、悲伤和怨恨之情. 在1920年代的代表性诗人中, 金素月是首屈一指的. 金素月的诗歌世界传达出对朴素纯真田园生活的憧憬, 同时还强烈地表达出挫折与不舍、抱怨与自责等矛盾的根源之丧失感. 这可以说对前近代的理想之乡的思念以及对经历丧失理想之乡的现实中的近代个人的苦恼的形象化.

金素月的诗歌中最受欢迎的作品是《金达莱花》, 我慢慢读一下全文.

《金达莱花》

当你厌倦, 离我而去时, 我将默默为你送行.

在宁边的药山, 采下满怀金达莱花, 撒满你离去之路.

一步一步, 花瓣朵朵, 请你轻轻地踩着离去.

当你厌倦, 离我而去时, 我死也不会留下眼泪.

金素月的《金达莱花》描述出话者在离别时的挫败感, 同时也强烈表达出对"你"的不舍与执着. 表面上表达的是"为你送行"的盲目服从与顺从, 但里面的不舍、怨恨以及自责、矛盾等感情也综合的表达了出来, 我们可以感受到这一点. "你"虽然要离开"我", 但"我"对"你"的眷恋却用反语的形式非常有个性的表达了出来.

下面是金素月诗人的《山有花》, 我来读一下全文.

《山有花》

山中花开，花儿绽放，无论春夏秋冬，花儿绽放。

山中，山中绽放的花儿，远远地独自绽放。

山中鸣叫的小鸟啊，只为恋花，长居山中。

山中花落，花儿飘落，无论春夏秋冬，花儿飘落。

金素月诗人的语言非常简单。日常语言的自然是金素月诗人最大的特点。《山有花》描绘了自然的循环秩序，同时又暗示了在远处观察的、在自然之外的主体的内心活动。第二联中的“山中，山中绽放的花儿，远远地独自绽放”是一个多重表述，话者与花的距离、在话者立场上离得很远的花、看花的距离，这个花远离其他花，独自绽放，其他花与独自绽放的花的距离也都表达了出来。虽然可以有很好解释，但表达的却都是孤独感。

这里充分表达出近代个人必然感受到的根源性孤独，这一点非常重要。如果仅是看前近代的风景，那就会以“花很美，自然很美”结束，但这里却是以寂寞的视线在观察，这一点非常重要，充分说明金素月的这首诗是近代诗歌。金素月的《山有花》描绘的世界不是单纯循环的理想又完美的世界，和谐秩序之循环已经被近代化的过程，或者说被殖民地化过程破坏，这首诗暗示的是这样一个被破坏的世界。

“我”无法享受美丽花朵的美丽这一内心也流露了出来。这里介入了主体与对象之间无法逾越的根源性孤独。作品中“远远地”这个表述表达的是距离感与孤独感。被扔在残酷的世界上，在哲学中有“被抛”这个用语。这个“被抛”是被动的，“我与被扔在残酷世界的那个孤独的花一样啊”，诗人的这个被动感觉在首歌中表达了出来。我们可以这么解释。

下面我来读一下金素月的《招魂》。

《招魂》

支离破碎的芳名啊！空中飘散的芳名啊

千呼万唤也无主的芳名啊！声声呼唤直到我失去的芳名啊！

心中珍藏的那一句话，终究也未能表白。

我曾经深爱的人啊！我曾经深爱的人啊！
红日即将沉入深山，鹿群也悲鸣不已。
在疏离的山上，我呼唤着你的芳名。
千呼万唤满含着悲伤，满含悲伤地千呼万唤。
声声呼唤泛起涟漪，奈何天地相隔万里。
纵然化身为石，声声呼唤直至我死去的芳名啊！
我曾经深爱的人啊！我曾经深爱的人啊！

金素月的《招魂》以韩国传统葬礼的一个步骤为素材。韩国传统葬礼中的招魂是指，拿着亡者的衣服，爬到屋顶上，朝北方呼唤三次亡者的名字。金素月用招魂比喻地表达出爱情受挫的凄凉悲伤。爱人死亡的现实，以及否认这个现实并召唤亡者的行为相互矛盾，将难以接受这个死亡的矛盾感情用激情的方式再现，这就是《招魂》。

今天考察的第二位诗人是韩龙云。韩龙云是僧侣，是主导3·1运动的民族代表33人之一。可以说是代表佛教参与3·1运动的独立运动家。他基本上不参加文坛活动，但却是1920年代出版了最优秀诗集《你的沉默》的重要诗人。

如果要选出两本1920年代的重要诗集的话，一本是《金达莱花》，第二本就是《你的沉默》。如果说金素月得到了老师金亿的指导与帮助，虽然没有师承关系，韩龙云从泰戈尔那里学到了很多，

泰戈尔是印度诗人。泰戈尔是第一个获得诺贝尔文学奖的东方人，获奖后立即闻名天下，他还去日本进行了讲演，日本的报纸与殖民地朝鲜的报纸也对此进行大肆宣传，泰戈尔作为打败西方人而获得诺贝尔文学奖的东方人，备受瞩目。看到诗人泰戈尔的作品，韩龙云产生了“我也想写这样的作品”的想法。如果说泰戈尔描绘了对神的礼赞，即描绘出超越社会与历史的神圣世界的话，韩龙云虽然借用了许多泰戈尔语法以及概括诗歌神圣内容的恋爱诗，但写出了比泰戈尔更直接地思考民族现实问题的作品。

韩龙云诗人用艺术的方法将佛教思想与独立运动精神结合，韩龙云诗人的自由与平等、民众指向等特征都以佛教的世界观为基础，而且还结合了主动对应民族主义与历史现实的独立精神。

基本上，韩龙云的诗歌由佛教的比喻、高度的象征手法构成，这是第一个特征。第二个是表

露出女性的语气, 这与泰戈尔的影响、观音菩萨为代表的佛教影响有关. 我们可以这么解释. 这是韩龙云诗人的代表作《你的沉默》, 这首诗有点长, 我们慢慢来鉴赏一下.

《你的沉默》

你走了, 啊! 我深爱的你离我而去.

穿过那翠绿的山色, 沿着一条通向枫林的小径, 你断然离开.

昔日的海誓山盟仿佛黄金花瓣坚固灿烂, 如今已化为冰冷的尘埃, 随叹息的微风而逝.

那尖利的初吻记忆, 拨转了我命运的指针, 又消失得无影无踪.

你那甜言蜜语使我耳朵失聪, 你如花似玉的容颜使我眼睛失明.

爱是人间事, 尽管从相遇伊始, 我并非不担心、提防你的离去,

离别竟如此突然, 让我受惊的心再次陷入悲伤.

但, 让离别变成无谓的泪泉,

这是我在领悟爱的真谛, 所以,

我将那难耐的悲伤之力, 全部倾注到新希望的顶端.

正如我们相遇时担心离别, 离别时也相信再次相遇.

啊! 虽然你已经离我而去, 但你依然在我心中.

那爱的旋律, 情不自禁地萦绕着沉默不语的你.

在韩龙云的《你的沉默》中, 失去了"你", "你"消失了. 反抗失去"你", 即反抗离别的表述是非常重要的主题. 我们可以说它是一个反复的主题. "你"虽然走了, 但我在心里没放你走. 这首诗表达的是这样一种悖论性的信念. 与离别以及离别的悲伤再会, 回归到再会这样积极的语言, 积极的想象力是以佛教特有的唯心主义想象力为基础的. 佛教经常通过禅的特征, 进行反语的即与日常语言不同的、非常超然的想象. 韩龙云诗人的想象力在一定程度上反映出这个特征. 回顾内心是佛教的表达. 诗人将超越有与无、存在与丧失、可能与不可能、相遇与离别界限的佛教超然意识用诗歌的形式表达了出来. 色即是空, 物质与无物之虚空是一样的, 这样的超然意识融入到了这首诗的手法之中. 通过执着地牵引、引领极度倾斜之心的佛教修行者的精神, 展示出独特的诗歌紧张

感, 这可以说是韩龙云诗人的特征.

第二首展现韩龙云诗歌精神的是作品是《无法知晓》, 一起来鉴赏一下.

《无法知晓》

无风的空中掀起垂直的波澜,
轻轻飘落的梧桐叶是谁的脚印?
漫长梅雨的尽头, 随西风而去的黑云间
闪现的蓝天是谁的脸?
无花的幽林上, 漫过绿藓, 略过古塔上
宁静天空的那未知的香气, 是谁的气息?
那不知何处而来, 又撩响石尖
细细流淌的溪水, 是谁绕梁的歌?
用轻若莲花的脚步踩着无尽的大海, 用如玉的手
抚摸无穷的天空, 那点缀落日的晚霞, 是谁的诗?
燃尽后的死灰重生为油,
我那不停燃烧的胸腔是一缕微弱烛光, 在守护谁的夜晚?

这首诗的内容充满了哲学性, 不过, 以自然与日常为素材, 所以相对容易理解. 对万海韩龙云诗人而言, 自我, 即我, 不是界限分明的实体, 而是一种可能性. 因为可以进行作为他者的自我超越、自我牺牲. 在佛教中, 自我通过牺牲这个超越, 可以成为万物, 也可以进行无尽自我扩大. 前面的作品中, 各种自然物之外的超然的存在可以与"我"相连, 超然的存在也可以渗入到溪水、树叶、风声, 这是这首诗的想象力. 到达终点遇见的就是"你". 最终, "我"与这个超然的存在"你"并非不同, 而是相连的. 此时我与你同在, 这是佛教想象力的特点.

5차시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민족 문학

1920년대抵抗日本殖民统治的运动大体可以分为两种. 在国外, 独立军主要以武装斗争为中心, 展开了抵抗运动, 在国内, 阶级斗争运动与实力养成运动则是主流.

实力养成运动是一种稳健主义, 主张为了未来的独立, 现在比起抵抗与斗争, 更应该培养自己内在的力量. 主要是培养力量, 所以, 以教育与启蒙运动为中心而展开. 不过, 阶级斗争运动则主张, 为了改善现在朝鲜民众, 即朝鲜劳动者与朝鲜农民面临的现实问题, 应该立刻积极展开社会运动.

我们来看一下殖民地时期的阶级运动, 即社会主义独立运动的特点. 当时殖民地的情况是, 绝大多数的地主与资本家已经替换成日本人, 在抵抗资本家上, 为劳动者与农民进行的阶级革命就是抵抗日帝的独立运动. 因为资本家都是日本人. 与那些在远处、只能靠报纸上的消息才能接触到的独立军的武装独立斗争相比, 我现在马上就要饿死了, 为了解决我眼前的生计与生存问题, 而与我并肩作战的社会主义运动更容易被殖民地民众感知到. 所以, 1920年代中期以后, 社会主义在朝鲜非常盛行, 社会主义知识分子也得到了大众的广泛支持.

1925年成立的KAPF即朝鲜无产阶级艺术家同盟是其核心. 它是以朴英熙、金基镇等文学家为中心的PASKYULA与以社会主义运动家为中心的焰群社合并而成的团体. 初期以朴英熙、金基镇的评论以及崔曙海的小说等为中心展开活动, 诗歌很少. 他们有直接讨论现实问题的组织目的. 根据那个目的进行创作, 比如说小说, 就创作出名留文学史的作品. 重要的作品基本上由KAPF的小说家发表, 也是我们文学史上非常重要的作品.

但诗歌领域却没有取得较高的美学成就, 也缺乏得到大众普遍共鸣的诗人. 作为代表性的事例, 我们看一下这一首诗歌. 柳完熙诗人的《街头的宣言》.

《街头的宣言》

民众 - 民众 - 民众, 坚决前进! 向前 - 向前

让都市的民众 - 乡村民众马达的声音更大

让大地的呼吸更深, 民众 - 民众的前进, 坚决的前进

我们要赞美她! 我们祝福她.

KAPF的诗人大多把文学当作政治的手段与工具, 完全忽视诗歌艺术性的倾向比较强. 但这些诗歌又与写满宣言的传单、宣传品不同, 在这一点上, 与1900年代崔南善、李光洙的后蒙诗歌相似. KAPF系列的作品基本没有韵律、格律, 很多诗歌连比喻、形象都没有. 内容上也是清一色的憎恶与敌对感, 很难得到广泛的共鸣.

不过, 诗人兼评论家林和的叙事诗克服这一缺点. 林和在1920年代后期发表的几篇作品被评为KAPF系列诗歌的新典范. 这个新方法是, 在诗歌中描述容易引起共鸣的实际故事, 即加入故事性要素、叙事性要素, 增加趣味性, 同时还传达出阶级意识、对革命的浪漫认识. 其特征是, 既克服了1920年代同人志诗坛的过度情绪化, 又导入了叙事要素, 获得了大众的共鸣. 我们先来鉴赏一下林和的短篇叙事诗中的代表作《哥哥与火炉》.

《哥哥与火炉》

哥哥, 但是, 你不要担心.

我是一个与这个国家的青年——我的哥哥血脉相通的女孩,

永南不是你常夸奖的妹妹吗? 买来如铁般乌龟花纹火炉的哥哥!

哥哥, 刚才, 你那个年轻的朋友来了.

带来了哥哥朋友可泣的消息.

他们是可爱又勇敢的青年, 是世上最伟大的青年.

就算火炉破碎了, 火钳仍像旗帜留下来.

哥哥离开后, 还有可爱的"先驱"永南,

所有小"先驱"妹妹温暖的胸腔内, 热血依然沸腾.

这部作品以叙述者妹妹写给入狱哥哥的信的形式讲述了一个故事. 曾是卷烟厂工人的哥哥进行劳动斗争, 即朝鲜人劳动者与日本人资本家斗争. 因为这个劳动斗争, 哥哥入狱, 妹妹与弟弟虽然艰难地肩负起生计, 但却未失去对哥哥的爱以及对哥哥斗争的信任. 而且表示将来也不会失去. 这首诗有趣的故事引起了共鸣, 强烈的阶级意识与斗争意志也有效地得到了刻画, 引起了读者的共鸣.

我们再来读一下林和的另一篇短篇叙事诗《十字路口的顺伊》。

《十字路口的顺伊》

顺伊！妹妹！劳动的青年、勇敢汉子的恋人啊！
想想吧！今天你珍贵的青年勇敢的汉子
用那整个青春都在辛勤工作的消瘦的手指
在牢固的砖墙上画台历。
看看！快！这个男人和你的哥哥……
留下的唯一物品只是个脏领带！
奥！暴风雪像货车一样鞭策着街头。
好，这就是钟路的十字路口！
快！你与我闪电般的拉起手，为了明天，走向那个胡同。
为了你的汉子，也为了劳动的所有女人的恋人……
这不是你与我幸福的青春吗？

这首诗是哥哥在安慰因恋人被关进监狱而悲痛的妹妹，和刚才的作品一样，是信的形式。诗歌设定的是最能反映当时现实的、普遍又典型的情况。即这首诗不是诗人目睹的、认识的人的故事，而是那个时代最普遍的故事，即在日本人工厂里被榨取出卖劳动力的朝鲜青年的故事。诗人将其设定为最具代表性的典型人物模型。通过这个典型的情况与人物类型，披露殖民地的时代矛盾，也揭示了朝鲜青年应该如何活下去的时代使命。虽然反映着悲剧的生活，但同时也有效地描绘出阶级心理与感情。这一点，林和以前的其他KAPF诗人都未能做到。它是个全新的形式，也轰动一时，得到了很高的人气。很多诗人都盛赞林和的诗歌。

林和的诗歌虽然得到了共鸣，但其缺陷是，没能描绘出具体的现场或运动的过程，也没能描绘出积极行动的面貌与抵抗的面貌。我们可以这么评价。

国内抵抗文学的左派中有KAPF文学的话，右派则有被称为国民文学派的人物与潮流。KAPF成立后，社会主义派别的文学，即无产阶级文学是大趋势。以前的文人对此持反对的观点。国民文学派便反对无产阶级文学。其中心人物是崔南善、李光洙等为首的原有文坛。

反映这个原有文坛理论的、最具代表性的核心内容是时调复兴运动。国民文学派主张，时调克服了1920年代初期的个人主义与浪漫主义诗歌，也克服了KAPF派文学僵硬的语言、斗争性语言，是一种新的对策。时调可以将朝鲜的国土、朝鲜人的生活、朝鲜之心通过朝鲜人的语言中蕴含的朝鲜的韵律进行表达，是一种符合时代的必然样式。时调才是，也必须是表达国民文学精神的最好形式。这是国民文学派的主张。展示现代时调新面貌的时调诗人是李秉岐，这是他的《晨路》我们鉴赏一下。

《晨路》

夜晚未能走的路，清晨走，
酣睡醒来尽快工作。
无论别人走与否，我走我的路。
就算村里的鸡鸣叫，能唤醒沉睡的国都吗？
墙角下小溪涓涓流淌
但有谁侧耳倾听？
店门一开，去赶集的人
背着水桶步履蹒跚的人，
是清晨的同路人，是否随行？

这首作品平淡地描述了清晨的日常。在时调复兴运动早期，崔南善、李光洙等主导时，其水平与朝鲜时代的古时调、平时调无异。但李秉岐果断地呼吁改革时调，他展示出现代时调的新模型、新主题、新表达方式。他的时调作品表达出古时调里看不到的新感觉、现代感，由此，李秉岐成为时调复兴运动的核心人物。我们可以这么评价。